금주의 법구–〈중부경전〉
지나간 것을 쫓지말며
오지 않는 것을 바라지 말라.
'지금 여기'를 살도록 노력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98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5월 4일) 2020년 6월 24일 수요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6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주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오체투지 기도회'를 봉행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차별·혐오 없는 세상 만드는 '첫발'

21대 국회 이것만은 제개정을

1. 차별금지법
2. 사찰 건축 관련 법령
3. 문화재 도난 관련 법령
4. 사찰 제세 관련 법령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불교계를 주축으로 한 종교계와 각 분야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말 그대로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다. 2007년 법무부 발의로 첫 상정된 후 몇 차례 입법 시도가 이어졌지만 일부 개신교계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쳐 번번이 폐기 또는 철회 수순을 밟아왔다. 2013년 이후 사실상 제정 움직임이 중단된 상황에서, 최근 21대 국회 개원을 기점으로 법제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불교계는 여러 종교계 중에서도 선제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을 뿐 아니라 적극적인 입장표명으로 법제화를 촉구해 왔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모든 생명이 평등하다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증오와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해,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게 불교계의 전반적인 인식이다.

특히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 왔다. 선거때에는 불교계 정책제안으로 요구해 왔으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이하 사노위) 주도로 성소수자·노동·여성인권단체와의 연대활동은 물론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차별금지법 제정 경과

년도	발의	결과
2007년	법무부 입법예고안(초안)	17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2008)
2008년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10인)	17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2008)
2010년	법무부 산하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출범	성과 없음
2011년	권영길 의원 대표발의(10인)	18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2012)
2012년	김재연 의원 대표발의(10인)	19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2016)
2013년	김한길 의원 대표발의(51명)	입법 예고기간 개신교 중심의
	최원식 의원 대표발의(15명)	거센 반대운동에 자진철회(2013)
이후 입법 발의 움직임 전무		

2007년 법무부 발의 이후 6차례 입법시도 무산
7년만의 입법발의 가시화… 불교계 法제정 촉구

이런 점에서 조계종 사노위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공동으로 6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주변에서 봉행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오체투지 기도회'는 그간 사회 각 분야에서 형성된 '차별없는 세상을 향한 염원'들이 한데 모이는 신호탄이라는 평가다.

이날 오체투지 기도회에 참석한 장혜영 21대 국회의원(정의당)은 "이미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뤄졌다"며 "정치는 더 이상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혜영 의원은 현재 '차별금지법(안)' 상정을 위한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며, 입법발의를 위해서는 최소 10명의 공동발의자가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새롭게 출범하는 21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 법제화가 현실화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대 국회부터 18대, 19대로 이어진 입법시도가 성과 없이 좌초된 이후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아예 발의조차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요인은 일부 개신교계의 반발로 꼽힌다. 성적소수자를 인정하지 않는 교리 때문이다. 2013년 김한길·최원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철회한 데에도, 입법예고 기간 집중적으로 이뤄진 일부 개신교계의 조직적 반대운동에 대한 부담이 상당부분 작용했다. 당시 두 의원은 입장표명을 통해 "일부 교단의 항의와 민원은 물론 공동발의한 의원들을 향한 낙선 서명운동 등 압박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결과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일부 개신교계의 반발을 극복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주요정당이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이에 대해 이종걸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장은 "인권은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 기본권"이라며 "더 이상 사회적 합의라는 핑계 뒤에 숨어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평등을 외면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차별금지법 제정은 과거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였던만큼 문재인 정부 역시 이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국제사회의 흐름이기도 하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7년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결과 한국정부에 대해 차별금지법을 권고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도 차별금지법 법제화를 직·간접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21대 국회가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장 혜찬 스님은 "종교적으로 교리적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종교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며 "21대 국회와 종교계는 인간과 생명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지향성,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 모든 분야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다.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증오와 혐오, 이로 인한 폭력을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2007년부터 입법이 추진됐지만 현실화되지 못했다.

최악 치닫는 남북관계
불교·종교계 "대화하라"

민추본 등 6월 17일 긴급성명 잇따라 발표

북한이 4.27 판문점 선언의 결실인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극단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남북관계가 역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7대 종교계 지도자들의 모임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와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등 종교계 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전향적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특히 "남북관계가 반목과 긴장으로 위태롭던 과거로 다시 회기해선 안된다"며 "대화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회장 원행)는 6월 17일 '지금은 더 나은 남북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제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강경대처 이면에 자리한 답답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분명하고 확실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종교인들은 "강경 대응을 지양하고 더나은 미래를 위해 남북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오히려 위기에 마주한 지금, 그동안 우리가 어렵게 일궈낸 금강산, 개성 등 평화와 번영의 공간을 더 넓히는 계기를 마련할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원택, 이하 민추본)도 같은 날 긴급성명을 내고 "만남과 대화만이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를 되찾는 길"이라며 남북 양측의 상호 노력을 촉구했다. 특히 북한에 대해 "더 이상의 군사적 조치나 무력 대응을 하지 말고 남측의 특사파견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요구한데 이어, 남한 정부에 대해서도 "맞대응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7대 종교, "강경대응 지양"
민추본 "대화로 신뢰 회복"

이어 "당장이라도 금강산관광 재개를 통해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한 발짝 진전시키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6월 25일 예고된 대북전단 살포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추본은 "실천과 노력 없이 평화는 오지 않는다"며 "남과 북 모두의 노력과 양보로 다시 한 번 남북관계의 획기적 반환점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산하 통일바루(회장 김진영)도 6월 9일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 되지 않는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 제하의 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 통일바루는 이에 "현재 남북관계는 막혀있지만 2018년 함께 맺은 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은 계속 지켜져야 하며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며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을 맞아 남북 간 관계개선과 대화의 장이 다시 열리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의평화불교연대도 6월 17일 '정부와 국회는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즉각 실천하라!' 제하의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통해 북미교착상황에 활로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워킹그룹 해체와 미국의 대북제재 중단을 촉구했다.

송지희 기자



"수좌 스님 뒷바라지, 우리 힘으로!"

선원수좌회 후원모임 '선주회' 7월 4일 창립 법회

용문사서 창립법회 개최
3천 여 회원으로 구성돼
월법회 · 승보공양 전개
선수행 · 생활참선 교육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수좌 스님들의 수행을 뒷바라지하는 재가불자모임 선주회(禪主會)가 첫발을 뗀다. 조계종 수좌 스님들의 결집체인 전국선원수좌회 부설 조계종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대표이사 의정)는 재가불자모임인 선주회를 창립한다.

7월 4일 오전 10시 30분 양평 용문사에서 열리는 창립법회서는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인 의정 스님(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 대표)의 법문과 조직 선포 등이 이뤄진다.

조계종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는 수좌 스님들의 노후복지와 간화선 대중화 및 세계화에 나서고 있으며, 2000여 수좌 스님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 취지에 공감해 3000여 재가불자들이 후원하고 있지만 이들이 함께 수행을 하거나 선과 관련된 교육을 받는 등 적극적인 활동은 미미했다.

선주회는 선원수좌 스님들 후원하는 공식 조직으로 향후 월간 정기법회 및 수련회를 열고 선원 대중공양 및 후원, 생활참선 수행교육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선주회는 올해 3월 초 김한란 성신여대 교수와 정상철 강원전기 대표이사가 회장을 맡으며 구성됐으며, 6월 초 임원 위촉을 시작으로 조직화가 완료됐다. 교수불자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최용춘 상지영서대 교수가 사무총장을 맡아 실무를 진행한다.

정상철 공동회장은 "그동안 '禪' 회보를 통해 후원해주신 감사를 표했지만, 보다 적극적인 활동의 필요성에 따라 후원회를 조직하게 됐다"며 "수좌 스님들의 명법문을 청하고 수행 지도도 받으며, 후원회원이 모여 매월 법회와 순례 등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주회의 발족에 따라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가 진행 중인 각종 목적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가시화 되는 것은 문경 세계명상마을 불사다.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는 한국 선(禪) 전래 1200주년인 2021년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수행마을로 문경 세계명상마을 불사를 추진하고 있다.

1단계 불사로 2018년 7월 12일 웰컴센터와 기반시설 착공이 이뤄져 현재 막바지 작업에 이르렀으며, 새로 명상관과 숙소동, 교육관 등으로 이뤄진 2단계 불사가 예정돼 있다. 이번 선주회 발족과 함께 자부담금 마련 등 어려움이 해결돼 2021년 가을 완공을 목표로 불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가 진행 중인 수좌 스님들의 의료 지원 및 노후 생활 지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희승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 명상마을사업단장은 "종단에서 최근 승려 노후복지에 힘쓰고 많은 부분에서 개선되고 있지만 수행만 해오신 선방 수좌 스님들은 몸이 아프거나 노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가 진행 중인 수좌스님 지원사업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 목표인 간화선 세계화에서도 선주회 네트워크가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를 표했다.

김한란 선주회 공동회장은 "앞으로 스님들의 수행정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재가불자 수행열기도 진작시키기 위한 모임 등을 꾸준히 갖겠다"며 사부대중의 관심을 당부했다. (031)772-9968

미래지향 첨단 3군 통합법당 가시화

군종특별교구장 혜자 스님 16일 백만원력불사 1억원 동참

호국사 영외법당 불사 앞두고
혜자 스님 불사 첫 지정 기탁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 설명
최첨단 시설, 모연 시작 알려



미래지향적인 최첨단 군법당 건립이 추진된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선묵 혜자)는 6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백만원력결집 불사기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불사기금은 계룡대 호국사 영외법당 건립을 위한 교구장 혜자 스님의 지정기탁으로 사실상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의 영외법당 불사계획 보고와 본격적인 불사 모연을 앞둔 행사 의미로 진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군 복무를 해봐서 그 나이대의 젊은 청년들이 어떤 의지처가 필요한지 느꼈다. 계룡대 영외법당이 젊은 장병들의 의지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다들 힘을 합쳐 군포교에 더욱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혜자 스님을 비롯해 부교구장 성광스님, 성진 스님 등은 계룡대 호국사 영외법당 건립 추진현황을 세밀하게 보고했다.

계룡대 호국사 영외법당은 최근 5000여 평의 부지가 13000여 평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을 새롭게 실시하고 설계 등을 일부 보강, 수정한 바 있다.

혜자 스님은 "계룡대는 우리 군의 중심으로 이 곳에는 그동안 교회와 성당이 최신시설로 있었다. 호국사 영외법당 완공시 우리 군에서 가장 장엄한 곳으로 자리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법당과 교육동이 분리되며 총 사업비 111억에 3층 규모의 대웅전, 다목적홀 등 법당 건물과 150명이 수용가능한 교육관 건물로 지어진다. 법당은 좌식과 입식을 병행하여 시설이 들어서며 교육관은 온돌마루를 활용해 24객실로 구성된다. 군종교구는 7월 중 시공사 선정 후 8월 착공, 2021년 11월 완공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계획에 원행 스님은 "법당의 명칭 등도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로비 등 설계도 꼼꼼하게 챙겨 불사를 원만하게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조직 · 회칙 대폭 개선…민주적 운영토대 확보

전국비구니회, 6월 12일 12대 출범 첫 정기 총회 분야별 10개 위원회 신설



전국비구니회는 6월12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전국비구니회가 12대 출범 후 첫 정기총회를 열고 분야별 위원회 신설, 집행부 및 운영위원회 체계 구축, 회칙의 미비점에 대한 전폭적인 개정 등을 의결해 향후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그동안 선거 때마다 논란을 빚어 온 회장 선출을 비롯한 각종 선거제도를 체계화 · 구체화한 별도의 선거법(안)을 논의했으며, 원로회의와 명사, 비구니종회의원 관련 규정을 대폭 수정 · 신설해 향후 비구니 위상 강화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6월12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에서 12대 집행부 구성 이후 첫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는 2019년 결산 및 2020년 예산 및 사업승인의 건 등을 시작으로 △회칙 제개정의 건 △선거법 제정 △원로 · 명사 추대의 건 등을 안건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본각 스님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만큼, 그동안 전국비구니회의 미비점으로 지적돼 온 운영회칙 및 각종 규정에 대한 제개정, 집행부 및 운영위원회 등 조직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이 핵심안건으로 다뤄졌다.

전국비구니회는 이날 인사 · 포상 · 징계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원로추대위원회 등 10개 분야의 제위원회를 신설키로 의결했다. 이는 일부 임원을 중심으로 한 주먹구구식 운영 및 이로 인한 갈등을 방지하고 대민주주의 방식의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비구니회 운영 현실과 맞지 않거나 모호한 표현으로 논란을 야기했던 운영회칙도 감시와 견제기능을 확보하고 원칙에 맞는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대폭 개정됐다. 대표적인 대목이 운영위원회와 집행부, 지방조직 관련 규정 신설을 통한 세분화 · 구체화다. 운영위원회의 역할이었지만 명확한 원칙이나 세부규정이 없어 갈등을 빚었던 비구니종회의원 선출도 자격과 선출방식 등 항목을 구체화하고 활동, 역할 등을 회칙에 명시해 비구니 위상 제고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했다.

원로회의 및 명사 등 비구니 원로 스님에 대한 규정을 신설 · 개정해 비구니 위상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비구니회는 임기가 만료된 원로위원을 명예위원으로 모시기로 하고 원로위원 구성도 25인 이내로 상향조정했다. 또 원로의원과 명사의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명사는 원로위원 중에서 추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원로 및 명사법계추대위원회를 별도로 운영,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선거법 제정의 건도 논의됐다. 선거법은 전국비구니회장, 비구니중앙종회의원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날 총회에서 입법예고 후 추가 논의를 거쳐 2021년 정기총회 의결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회장 본각 스님은 "한국불교의 미래 지향점을 찾기 위해 비구니승가가 각 분야에서 주체적으로 시대를 직시하는 참다운 결사운동을 청하고자 한다"며 "함께 배우고 실천하고 사유하고 고민하고 개선해 나아가는 계기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금산사 주지에 일원 스님 임명

산중총회서 만장일치 선출 조계종, 17일 임명장 수여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 주지에 일원 스님〈오른쪽 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6월 17일 일원 스님에게 금산사 주지 임명장을 전달했다. 원행 스님은 "성의를 다해 교구를 잘 이끌고 발전시키는 데 노력하길 바란다"며 "대강백이자 이치와 실무에 두루 밝으신 만큼 조실 스님을 비롯한 대중들과 화합하면서 교구를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금산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화평)는 6월 16일 주지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일원 스님을 주지후보로 선출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 세영 스님으로부터 당선증을 받은 일원 스님은 "금산사 조실이신 월주 대종사의 원력을 받들어 대중들과 화합하며 교구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전임 주지 성우 스님이 완성한 전주 혁신도시 전법도량 수현사를 활성화시키고 거점포교도량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은 월주 스님을 은사로 1975년 수계(사미계)했으며, 봉암사 태고선원, 금산사 서래선원, 칠불사 운상선원, 불국사선원 등에서 안거 수행했다. 학소암, 영화사, 학림사 주지 및 제17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송지희 기자 · 조동제 전북지사장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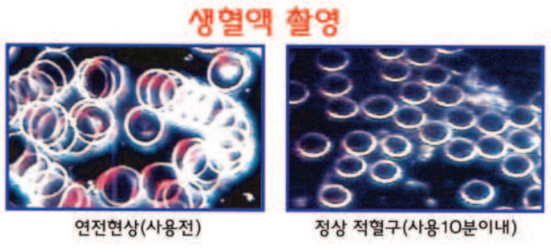


BLOOD MATE® (비누), ORAL MATE® (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체외에는 머리부터 발가락 사이까지 BLOOD MATE®비누

폐렴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하는 BLOOD MATE®비누는 보약을 먹은것도 아니고 주사를 맞은것도 아닌데 BLOOD MATE®비누를 단 한번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연전현상의 엉켜있는 적혈구가 정상적혈구로 뇌파가 안정되며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BLOOD MATE®비누로 샤워하고 물기를 닦은후 재차 샤워타월을 깨끗이 빨아 짠 후 비누를 다시 묻혀서 거품을 내어 머리부터 발바닥, 발가락 사이까지 거품으로 맛사지하면 머리거품이 가발을 쓴것 같지만 전신을 맛사지하는 동안 거품이 세포속으로 스며들고 전신의 거품도 세포속으로 스며들며 거품이 없어지면서 허리통증, 어깨, 목아픔이 없어지고 뇌파가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지고 다리에 쥐가 나는것을 개선하는 효과.

BLOOD MATE®비누는 아토피, 무좀, 가려움증, 비듬, 발뒤꿈치각질, 체취 등 각종 피부질환을 없애주고 때를 일부러 밀지 않아도 거품으로만 마사지해도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투명한 피부는 물론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의 효과가 있다.

체내에는 구강부터 항문까지 ORAL MATE®치약

폐렴균 · 대장균 ·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하는 ORAL MATE®치약은 양치 후 입 밖으로 뱉어내지 않고 그대로 복용하면 구강부터 항문까지 사이에 폐렴균에 의한 질환 예방과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어지고 과식·과음 시에는 양치 후 먹으면 속이 빨리 편안해지고 해독되면서 정신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잇몸이 튼튼해지며 이나 잇몸이 아플 때에는 아픈 부위에 치약을 그대로 발라만 줘도 밤새 통증이 사라집니다. 팔과 다리에 피가 나는 정도의 상처에 치약을 바르고 반창고를 덮어 주었는데 통증도 없고 3일이 되니 깨끗이 상처가 나아버린 체험을 했습니다.

폐렴균 · 대장균 ·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하는 ORAL MATE®치약은 저녁 식사 뒤 양치 후 삼켜버리면 입안의 세균이 없어짐은 물론, 구강부터 항문까지 건강해지고 매일 고질적인 구취까지 없어져 입안이 개운한 것이 특징입니다.

BLOOD MATE® 강비누:25,000원2개 = 50,000원
BLOOD MATE® 순비누:15,000원5개 = 75,000원
ORAL MATE® 치 약:21,000원3개 = 63,000원
188,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세정제인 비누, 치약이 별도의 추가부담없이 비누는 피가 맑아져 혈액순환 정상화에 의한 피부질환 개선, 치약은 잇몸건강은 기본이고 소화불량,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어진다면 이는 정부가 생산활동을 막을것이 아니라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하고 장려 육성하는 것이 국가의 올바른 정책입니다.

행정수도 세종시 포교 거점 불사 '본격화'

조계종 불사추진위원회 광제사 · 문화체험관 착공

신행 · 전통체험 공간 기대
세종시 포교 활성화 효과
2021년 12월경 준공 계획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불사추진위원회는 6월17일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산82 일원에서 전월산 광제사 대웅전과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봉행하고 불사를 위한 첫 삽을 떴다. 사진은 주요내빈들이 착공을 기념하기 위해 시삽을 하고 있는 모습.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에 불교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불교를 신행할 수 있는 현대적 도량을 건립하기 위한 불사가 시작된다.

조계종 불사추진위원회는 6월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산82 일원에서 전월산 광제사 대웅전과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봉행하고 불사를 위한 첫 삽을 떴다.

행정수도인 세종시에 불교문화체험과 지역 거점 포교 도량 건립을 발원한 조계종이 지난 2014년 세종시 종교부지를 매입한 지 6년 만에 본격적인 불사에 들어간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조계종이 추진하는 세종시 불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전통문화유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세종시에 불교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불교문화체험관'과 지역 불자들의 신행을 책임질 도량인 '전월산 광제사'이다. 이날 행사는 체험관과 광제사 대웅전 착공을 기념하고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열렸다.

전월산 광제사와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은 대지면적 16,000㎡(4,840평) 부지에 세워진다. 특히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은 연면적 5,495.96㎡(1,662.5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체험관은 불교미술 · 공예와 승무 · 범패 등 공연, 참선수행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체험관에는 상설 · 기획전시관과 공연시설, 체험 · 교육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체험관과 함께 착공된 광제사 대웅전은 연면적 306.18㎡(92.6평) 규모로 전통한옥 양식으로 건립된다. 건립에 필요한 비용은 백만원력결집 불사기금 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체험관과 광제사 대웅전 건립은 2021년 12월에 마무리되며, 이후엔 사찰 전각 건립을 위한 2단계 불사에 들어간다는 게 조계종의 계획이다.

조계종은 한국불교문화체험관과 광제사를 체험 공간이자 승가 · 재가 · 시민이 함께하는 도량으로 운영한다는 마스터플랜을 세웠다. 전통문화체험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책임지고, 충남권 포교를 담당하는 지역 포교 전진기지로 발돋움시키겠다는 것이다.

실제, 착공식에서 주요 내빈들의 메시지에는 이 같은 발원이 담겼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인사말에서 "세종시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아름다운 산자락에 터를 잡은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의 건립은 행정수도 세종시의 전통문화 핵심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한국불교문화체험관과 광제사는)세종시민과 국민들의 불교문화체험을 책임지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복합문화거점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착공식에서는 광제사와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이 세종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거듭나길 바라는 발원들이 이어졌다. 덕숭총림 수덕사 주지 정묵 스님(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은 "오늘의 대작불사는 세종시의 새로운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전 세계에 한국전통문화와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한 첫 걸음이자 국태민안과 세계평화를 위한 초석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한국불교문화체험관과 광제사가 세종시를 문화수도로 격상시킬 중요한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 착공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지홍 스님,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 수덕사 주지 정묵 스님,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 이춘희 세종시장, 최병구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등 주요내빈 100여 명만 참석해 진행됐다. 또한 세종시 불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온 세종시사암연합회장 환성 스님에게 표창패가 수여됐다.

"병든 지구 살리자" 불교기후행동 공식 출범

6월 15일 발족식…상임대표 미광 스님



불교기후행동이 6월 15일 공식출범 했다.

전세계를 공포로 밀어넣은 코로나19를 비롯해 미세먼지와 화재, 가뭄과 홍수 등 각종 자연재해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결과물이다. 동시에 무분별한 개발과 공장형 축산업,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난 데 따른 부작용이기도 하다. 기후위기는 인간이 만든 재앙이다. 병든 지구를 살리기 위한 개개인의 실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가 지구에 닥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개개인의 실천을 넘어 인식 전환을 꾀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에 착수했다. '불교기후행동'을 발족하고 개인과 사찰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연대활동을 시작한 것.

불교기후행동(상임대표 미광)이 6월 1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발족식을 열고 공식출범했다. 불교기후행동은 개인과 시민사회단체, 사찰 등이 병든 지구를 살리기 위해 원력을 모은 연대체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를 주축으로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광주전남불교기후행동, 조계종 포교사단 인천경기지역단과 지역 곳곳의 사찰 등이 '지구 온도 상향선 1.5℃'를 지키겠다는 원력으로 뭉쳤다. 지구 온도상승 제한선인 1.5℃ 중 이미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1℃가 상승했고, 이제 남은 온도는 0.5℃에 불과하다.

불교기후행동은 향후 △2020년 전국적 기후위기 비상선언 및 국회 차원의 위기대응법 제정을 이끌고 △불교계 각 종단과 국회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설치와 운영예산 책정, 사찰 주도의 에너지 전환△기후행동을 위한 불자들의 연대의장 마련 등을 실천서약으로 발표하고 각 분야에서 다각도의 노력을 개진할 것을 선포했다.

또 기후행동 캠페인과 지역별 불교기후학교 운영 등을 토대로 불교계 인식확산 및 실천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9월 22일경 종교인 대화마당에서 5대 종교 기후위기비상선언을 도출해 종교인들의 동참도 이끌 계획이다.

불교기후행동 상임대표 미광 스님은 "전통적으로 불교는 수천년간 인간과 자연을 하나로 여기며 살아왔다. 이제라도 불자들이 환경파괴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미래불교 경영발전 위한 포럼 발족

석탑불교경영포럼, 6월 12일 서울 진관사서 출범식 개최



고려대 불교교우회는 6월 12일 서울 진관사에서 '석탑불교경영포럼'을 출범했다.

정재계 인사들이 불교경제와 사찰경영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고려대 불교교우회(교우회장 홍승기)는 6월 12일 서울 진관사 함월당에서 '석탑불교경영포럼'(이하 석탑포럼)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 발족식에는 이기수 석탑포럼 이사장(前고려대 총장), 홍승기 석탑포럼 상임대표(前BBS불교방송 사장)를 비롯해 송석구 삼성경제연구소 고문(前동국대 총장), 김영우 한생산업 회장, 김성곤 평화 이사장(前국회의원), 박원식 신한은행 이사회 의장, 조창희 前문화부 종무실장, 이선재 BBS사장 등이 참여했다.

홍승기 상임대표는 이날 발족식 후 포럼 활동 계획으로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대학에서의 불교경영 세미나 개최 계획을 밝혔다.

또 교육 아카데미와 실시간 원격방송을 통한 온라인 법당도 운영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가 형편 어려운 학생에게 10억 쏜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동국대 학생들을 위한 동국대 교수들과 직원들의 기부릴레이가 펼쳐지는 가운데 동국대가 이들 학생에게 총 10억원의 '코로나19 극복 장학금'을 지급한다.

동국대는 최근 '코로나19 극복 긴급 모금 캠페인'으로 모은 기금 전액을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7월 중순까지 1인당 50만원씩 총 2000명에게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0일 동국대 문과대학 교원들의 기부로 시작된 코로나19 극복 모금 캠페인은 이 대학 교수, 직원, 동문, 불교계의 '기부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다. 5월 31일까지 기부 릴레이에 동참한 인원은 600여 명에 달하며 모금액은 약 10 억 원이다.

장학금 신청대상은 2020-1학기 재학생(학부, 대학원) 중에서 △학부모의 실직 및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자 △본인 또는 가족의 코로나 확진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받은 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정책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자 △본인의 아르바이트 등이 중단되어 생활이 어려워진 자 △기타 코로나19 긴급 피해 발생자 등이다.

노덕현 기자



“힘내라 인도! 코로나 극복 기원”

사회복지법인 안국, 인도에 마스크 10만장 전달

베누 스리니바산 회장 佛緣印, 한국전쟁 의료지원 국가 불자 기업 후원 적극 동참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민간단체 최대 규모로 보건 마스크 10만장이 전달됐다. 사회복지법인 안국은 6월 16일 안국선원 안심원 3층에서 ‘인도인들의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보건 마스크 전달식’을 개최했다.

방역에 취약한 인도를 위해 민간 단체 최대 규모로 보건 마스크가 전달됐다. 자그마치 10만 장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5천만 원에 달한다. 사회복지법인 안국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식을 진행하며 ‘힘내라 인도!’를 외쳤다.

사회복지법인 안국(대표이사 수불)은 6월 16일 안국선원 안심원 3층에서 ‘인도인들의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보건 마스크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에는 사회복지법인 안국 대표이사 수불 스님, 이윤희 사회복지법인 안국 상임이사, 정천식 (주)블루인더스 대표이사, 양재생 (주)은산해운항공 대표이사, 허숙 k-art 국제교류협회 이사장을 비롯해 신도 50여 명이 동참했다.

마스크가 인도로 전달되기까지는 우선 대표이사 수불 스님과 베누 스리니바산 TVS 모터그룹 회장과의 인연이 큰 역할을 했다. 베누 스리니바산 회장은 인도 3대 재력가이며 신심 깊은 불자로 알려져 있다. 2014년 한국 방문 당시 안국선원에서 수불 스님을 친견한 후 감명을 받아 스승으로 모신 후 한국 선불교 수행을 했으며 인도에 한국불교를 알리기도 했다. 지난 2016년에는 수불 스님께 도연(度然)이란 법명을 받고 수행을 이어 가고 있다.

수불 스님과 베누 스리니바산 회장은 수행 외에도 한국과 인도 간 문화 교류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이번 마스크 전달은 두터운 우정과 신의를 확인하는 시간도 됐다.

마스크는 베누 스리니바산 회장이 이끌고 있는 인도 · 한국문화원(InKo Centre)을 통해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인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수불 스님의 원력에 동참하기 위해 마스크 기증은 (주)블루인더스가 담당했다. 블루인더스는 산업안전용품과 보건 마스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정천식 블루인더스 대표는 수불 스님과의 인연으로 인도문화 교류에 앞장서며 인도 · 한국문화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부산국제아트페어에서 조직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아울러 마스크 선박 운송을 위해 불자 기업인도 함께 나섰다. 양재생 은산해운항공 대표는 모든 물류 운송비용을 전액 후원하고 마스크 기부에 동참했다.

생명을 위한 나눔에 불교계 사회복지법인과 기업인들이 모두 하나 되어 동참하는 뜻 깊은 자리로 의미가 크다.

인도에서 베누 스리니바산 회장은 직접 친서와 영상 편지를 보내 감사 인사를 전달했다.

베누 스리니바산 회장은 “존경하는 스승님, 수불 스님께서 인도에 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인도는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마스크가 너무나 필요한 시기인데 널리 잘 배분하고 필요한 곳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도 대사관에서도 친서를 보내 감사의 의미를 전달했다.

스리프리야 랑가나단 인도 대사는 “모든 인도인들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수불 스님의 행보는 오늘날 한국과 인도 간 우정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전달식에서 수불 스님을 비롯해 내빈들의 격려 및 인사말도 이어졌다.

수불 스님은 “인도는 한국전쟁 당시 의료지원을 해준 국가이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에 인도적 차원으로 마스크를 기부하게 됐다. 함께 지원에 나서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마스크는 부산항에서 선적되며 선박으로 8월 초에 인도 남부 도시 첸나이에 도착할 예정이다.

구룡사, 중창주 지형 스님 공덕비 건립

주지 무성 스님, “지형 스님의 원력 구룡사에 합쳐져”


통도사 포교당 창원 구룡사는 6월 12일 구룡사 일대에서 ‘삼성(칠성, 독성, 산신) 점안식 및 옥룡자 지형 대화상 공덕비 제막’ 법요식을 봉행했다.

통도사 포교당 창원 구룡사(주지 무성)는 6월 12일 구룡사 일대에서 ‘삼성(칠성, 독성, 산신) 점안식 및 옥룡자 지형 대화상 공덕비 제막’ 법요식을 봉행했다.

공덕비 제막식에는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 통도사 총무국장 종현 스님, 정법사 주지 도문 스님, 울산 청룡암 종성 스님, 원광사 인오 스님, 불광사 문수 스님, 무봉사 자명 스님 외 구룡사 신도 및 창원 불자 1000여 명이 동참했다.

행사는 1부 삼성각의 칠성, 독성, 산신 점안법회 △육법공양 △헌공 △헌화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는 법요식 및 지형 대화상 공덕비 제막식이 이어졌다.

주지 무성 스님은 인사말에서 “대작불사 회향을 향한 정진기도를 하다 보니 신도님들의 원력과 성취, 지형 스님의 원력이 구룡사에 모두 합쳐진 것 같다. 이 자리가 법계의 모든 중생에 두루 퍼져 불국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형 스님의 상좌인 정각사 덕산 스님은 “은사 스님의 공덕비를 제막하면서 이제야 조금이나마 스승의 은혜를 갚는 심정이다”며 “탑비도 세워야 하고 스님의 행적을 문집으로 만들어야 하는 숙제도 남아 있다. 위로는 은사스님과 널리 모든 대중에게 ‘지은보은(知恩報恩)’의 마음을 담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올린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완주 송광사 생전예수재 봉행

49일 반야경 독송법회 회향, 금선암 · 죽림정사도 동참


재는 진실된 마음으로 생전의 삼업 떨쳐내고 내생에 무량공덕의 인연으로 성불할 것을 다짐하는 엄숙한 불교전통이다” 며 “모두가 성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참회와 정진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 전주 금선암, 대전 죽림정사와 함께 합동 생전예수재 및 대승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완주 송광사는 6월 17일 관음전에서 49일간 봉행해온 반야경 독송법회도 회향했다.

사운당에서 전계사에 도영스님. 갈마사에 덕산스님, 교수사에 법진 스님을 모시고 봉행된 대승보살계 수계법회에 참석한 불자들은 십중대계와 보살 48경구계를 굳게 지나가며 생활할 것을 다짐했다.

송광사 회주 도영 스님은 “생전예수

주택금융공사, 영 · 유아 주거환경 개선 나서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 한국주택금융공사 MOU 체결


사단법인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는 6월 15일 행복드림센터 앞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업무협약식 및 개소식을 개최했다.

영유아 유기를 예방하고 생명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사단법인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이사장 정각)가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와 협약식을 체결했다.

사단법인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는 6월 15일 행복드림센터 앞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업무협약식 및 개소식을 개최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업무협약을 통해 미혼모 긴급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5000만 원을 후원했다. 후원금은 영유아 유기 예방과 미혼부모 가정의 행복권을 위해 사용 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영유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일시보호 시설 운영 △위기 상황의 임산부 및 미혼모를 위한 긴급 쉼터 △미혼부모 커뮤니티 및 교육 공간 지원 △청소년 및 미혼부모 미 자립가정 인큐베이팅 하우스 지원 △미혼모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함께 동참할 예정이다.

협약식은 업무 협약식 및 내빈 소개가 진행됐으며 환영사, 인사말, 축사, 경과보고 순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새롭게 제작된 현판을 제막하며 더욱 발전한 행복드림센터의 발돋움을 축하했다. 행복드림센터는 지난해 4월 29일 개소식을 정식으로 진행했으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원으로 새단장을 진행해 새롭게 인테리어를 마쳤다.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는 새출발을 다진다는 각오로 개소식 및 현판제막으로 축하자리를 마련했다.

업무협약 및 개소식에는 이사장 정각 스님, 공동대표 심산 스님,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조점호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사, 장인화 공동대표, 김진영 공동대표, 신상해 부산시의원 등 사부대중 50여 명이 동참했다.

이사장 정각 스님은 “부산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인구 감소 문제는 저 출산의 개념으로만 접근하기보다, 아기들의 양육환경 개선과 태어난 소중한 생명들이 온전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산 스님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마음을 내 주셔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됐다”며 “오늘 현판식도 다시 제대로 하고 새로운 시설, 새로운 모습, 새로운 공간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행복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국민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봉정사, 코로나19 템플스테이 운영

의료진 및 방역관계자, 소상공인 및 여행업 종사자 대상 무상 지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안동 봉정사가 코로나19 대응에 노력한 의료진 및 방역관계자를 위한 ‘토닥토닥 템플스테이’와 소상공인 및 여행업계 종사자를 위한 ‘쓰담쓰담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토닥토닥 템플스테이’는 코로나19 사태로 큰 희생과 헌신을 하고 있는 의료진 및 방역관계자들에게 휴식의 기회를 마련코자 봉정사에서 최대 3박 4일까지 머무를 수 있도록 기획됐다. 희망자는 파견의료인력 확인서, 코로나19 대응 근무 확인서 등을 지참하고 사찰 종무소나 홈페이지를 통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해당자와 동반자 1인은 일체의 비용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쓰담쓰담 템플스테이’는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여행업계 종사자들이 재직증명서를 지참하면 해당자와 동반자 1인까지 무료다. (010)3824-1008

박영애 영주지국장

불기 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전주불교연합회
회 원 일 동
전주시 덕진구 매봉로 40 전주생명평화센터 내
☎ (063)714-3309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상담(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 매주 수요일 밤 10-11시

| 현불 논단 |

코로나19와 'New Normal'



황순일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코로나19 전세계적 유행 상황
이전과는 다른 세상서 살아야
'New Normal' 관련 담론 多

유럽 · 미국 등 부실한 대처로
"서구화가 정답 아니다" 확인

초감시체제 대한 비판있지만
구성원 간 '새로운 표준' 인식
불교 '업설' 중요해지는 시대

코로나19의 위세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지만, 조심스럽게 코로나19 이후의 우리 사회를 예측하고 미리 대비할 준비를 해야 할 시점에 왔다. 해방 이후 우리 사회는 오랜 세월에 걸쳐 다양한 경험들을 해왔지만, 이번 코로나19처럼 사회 전반에 깊은 파장을 미치고 개개인의 생활을 변화시킨 예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코로나19 이전과는 전혀 다른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를 살게 될 것이다.

이는 이전에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였던 현상과 표준이 점차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상과 표준으로 자리 잡는 것으로서, 경제학에서 '새로운 표준(New Normal)'이라고 한다. 이 용어는 미국에서 2007년 이전의 오랫동안 지속된 호경기를 끝나고 2008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로 촉발된 금융 위기와 2012년까지 이어진 오랜 경제침체기를 겪으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가 지속되는 것을 지칭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전에 우리에게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였던 현상과 표준이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과 표준으로 자리 잡은 것에 어떤 것이 있을까?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를 이끌었던 서구화의 부작용이 여실하게 드러났다. 우리나라의 수출 주도 경제구조와 맞물려서 오랜 시간동안 사회는 서구화 일변도로 변화해 왔다. 하지만 우리의 서구화가 지향한 목표였던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이 코로나19에 우왕좌왕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더 이상 서구화만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답이 아니란 것을 모두가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다. 새삼스럽게 우리 사회는 우리가 가진 것에 고마워하게 되었고 한국적인 가치와 문화에 대해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다.

사실상 유럽의 몇몇 국가들과 일본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퇴보를 꼽으며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면적에 많은 사람들이 집적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초현대적인 정보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은 마음만 먹으면 이러한 정보인프라를 활용하면 손쉽게 추적할 수 있다.

초연결시대를 상징하는 스마트폰의 엄청난 보급률과 도시 구석구석에 설치된 CCTV 그리고 개별 차량 대부분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카드전표를 통해서 개개인의 동선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조지 오웰(George Orwell)이 소설 〈1984〉에서 비판했던 빅브라더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새롭게 나타났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초연결시대에 일종의 부작용으로 여겨졌던 초감시 체제가 대한민국의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부상했던 것이다. 사실상 우리들은 이러한 정보 인프라를 통해 개개인의 자유가 억압될 수 있다는 인지하고 있음에도 코로나19의 사회적 확산이 가져다줄 거대한 파장 때문에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초감시 체제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표준(New Normal)으로 자리 잡게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받아들이게 되어 버렸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 초감시 체제에 들어간 우리 사회에서 불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개개인이 스스로의 삶을 깨끗이 하고 선하고 착한 의도를 가지고 생활하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불교의 업설을 통해 개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러한 감시와 통제 없이도 충분히 밝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중심에 불교가 위치하지 않을까 한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긍정적 생각이 성공 부른다

긍정적인 생각은 그 어떤 어려운 일도 능히 이룰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어떤 행동으로 옮기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1950년대에 실제로 있던 일입니다. 영국 컨테이너 운반선 한 척이 화물을 내리기 위해 스코틀랜드의 한 항구에 닻을 내렸지요. 한 선원이 모든 짐이 다 내려졌는지 확인하려고 냉동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는데, 다른 선원이 확인도 않고 냉동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선원은 있는 힘을 다해 벽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고, 배는 포르투갈을 향해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쇠 조각 하나를 들고 냉동실 벽에 자기가 겪은 고난의 이야기를 시간과 날짜별로 새겨 나갔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기록한 셈이지요.

마침내 배가 리스본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냉동 컨테이너 문을 연 선장은 죽어 있는 선원을 발견했어요. 선장은 벽에 자세히 적힌 고통스런 일기를 읽어 내려갔지요. 컨테이너 안의 온도가 섭씨 19도인 것을 확인한 선장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컨테이너에 화물을 싣지 않았기에 당연히 냉동장치가 작동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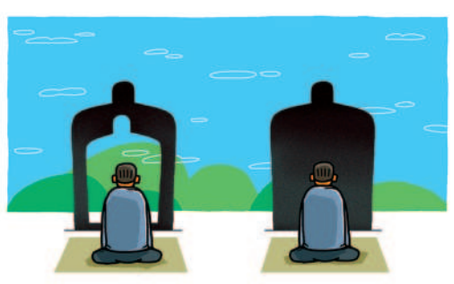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선원은 냉동 창고기 때문에 춥다고 생각했으며, 그 상상 때문에 얼어 죽고 만 것입니다. 자신의 상상력과 부정적인 생각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생각은 인간이 가진 가장 원초적인 힘의 발산이며, 때론 신통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이 끝나고 일본에 건너간 사명대사의 이야기도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사명대사는 왜병들에게 잡혀 철통에 갇히게 됐어요. 왜병은 장작불에 철통을 얹어놓고 불을 질렀지요.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장례를 치르려고 관을 준비해 뚜껑을 열었는데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새까맣게 타 죽은 줄로만 생각한 사명대사는 수염에 고드름을 달고 있었어요. 깨달음을 얻은 사명대사는 뜨거운 철통 속에 있으면서 오히려 춥다는 생각을 줄곧 했습니다. 이처럼 마음먹기에 따라 불가사의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지만 '나는 살 수 있다' 라는 강한 신념으로 기도해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들을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평소 부정적인 생각을 지닌 사람은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컨테이너에 갇힌 선원처럼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사실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누구보다도 압도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지요. 대부분 사람들은 긍정적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자신에게 속삭여 줍니다. 이처럼 긍정과 부정의 사고방식은 그 결과가 확연히 다릅니다. 이젠 긍정적인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육지장사 회주〉

社 說

차별금지법, 이제는 제정돼야

차별금지법의 제정목적은 명확하다. 바로 인권 보호다.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지향성,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 모든 분야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편견에 뿌리를 둔 증오와 혐오, 또 이로 인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안임에도, 2007년 첫 입법시도 이후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정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를 비롯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미온적인 국회 주요정당은 '아직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인권은 절대로 합의의 대상이 아니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본권에 속한다.

'사회적 합의'의 기준도 모호하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대부분이 개신교계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개신교계는 "차별 금지에는 동의하지만 성적소수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소위 말하는 '동성애'가 교리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혜영 국회의원에 따르면 여성정책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90%에 가까운 응답자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동의할 뿐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종교적 반대에 밀려 제정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조계종은 4.15총선을 앞두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정책제안 목록의 하나로 발표했다. 모든 생명이 평등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차별금지법이 추구하는 바와 같기 때문이다. 편견은 혐오를 낳고, 혐오는 증오가 되며 증오는 폭력이 된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돼야 할 때다.

세종시 불교문화체험관 착공에 부쳐

세종특별자치시에 불교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불교를 신행할 수 있는 현대적 도량을 건립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조계종 불사추진위원회는 6월 17일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산82 일원에서 전월산 광제사 대웅전과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봉행했다.

조계종이 추진하는 세종시 불사는 '한국불교문화체험관'과 '전월산 광제사'이다. 특히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은 1662평 규모로 지어지는 데 이곳은 불교미술 · 공예와 승무 · 범패 등 공연, 참선수행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체험관에는 상설 · 기획전시관과 공연시설, 체험 · 교육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세종시에는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설이나 문화재가 부족해 조계종이 추진하는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불사는 이를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함께 건립되는 전월산 광제사는 세종시와 충남권 지역 불자들의 신행을 책임질 도량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나아가 전월산 광제사 아래에는 중앙공원, 호수공원과 국립수목원이 건립될 예정이어서 세종시를 대표하는 문화 · 힐링지구로 발전될 전망이라고 한다.

새롭게 지어지는 한국불교문화체험관과 광제사는 전통불교문화를 체험하는 공간이자 승가 · 재가 · 시민이 함께하는 도량이 돼야 한다. 체험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책임지고, 신행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충남권 포교를 담당하는 지역 포교 전진기지로 나서야 한다. 조계종의 세종시 불사가 원만회향하길 기원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17~6/23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원빈스님의 금강경에 물들다	원빈스님	이층버스	6	법정스님이 세상에 남긴 맑고 향기로운 이야기	법정스님/김계운그림	불교신문사
2	요가디피카(아행가요가서)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행가 / 현천스님	선요가	7	읽기만 해도 보리심이 샘솟는 원빈스님의 천수경	원빈스님	이층버스
3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스님	정토출판	8	달라이 라마 화를 말하다 :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의 가르침	달라이 라마 / 이종복	담앤북스
4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6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9	지혜와 행복이 함께하는 찬불가곡 108 (1) 노래 악보집	미디어공명	미디어공명
5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재의 크신 서원	김원수	청우당	10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 정원규	불광출판사

책세상

신심 깊어야 잘 보이는 화엄과 비로자나불



비로자나불의 화엄세계
종일 스님 지음 / 무비 스님 감수
운주사 펴냄 / 1만2천원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법신불 50년 귀의 · 공부 회향
화장세계품 · 비로자나품' 공양
"화엄, 성불에 가장 가까운 말,
화엄경 주불 비로자나부처님"

책은 종일 스님이 부처님으로부터 받은 공부의 회향이다. 〈화엄경(80권 본)〉 중 제5품 '화장세계품' 과 제6품 '비로자나품' 을 소개한다.

"부처님은 이렇게 깨달으셨다. '이 세상은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부처다. 세상에 널려있는 사물과 사람들도 모두가 부처다. 선도 악도 그늘도 빛도 모두가 부처다. 행복도 불행도 극락도 지옥도 모두가 부처뿐이다. 〈중략〉 일체의 모든 일, 모든 것이 모두가 오직 부처뿐이다.' 그런데 꼭 부처라고만 부르지 않고, 혹은 마음이라 하고, 혹은 진리라고 하고, 혹은 법이라 하고, 혹은 해탈이라 하고, 혹은 열반이라 하고, 혹은 화엄이라고도 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르는 것은 그 내용을 한마디로 쉽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화엄이라는 말을 깨달음의 세계에 제일 가깝게 접근한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 하여 예로부터 높이 숭상해 불렀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세계와 내용을 잘 정리한 대표적인 경전을 우리는 〈화엄경〉이라 부른다."

'화엄(華嚴)' 에서 불법의 요체를 가장 깊게 느꼈던 종일 스님은 1967년 12월 15일(음) 창녕 영축산 청련사에 입산하여 법성 덕오당에 인도, 비로자나 부처님께 귀의하여 6년 동안 나무를 하고 농사를 지으며 채전에서 밭작물을 가꾸어 자급자족하며 수행했다. 이후 오로지 청정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의 "천지우주 삼라만상 진대지가 나의 전신체(全身體)" 라는 말씀과 덕오당이 내려준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모두 사진으로 찍히며, 말하는 것은 녹음이 되고, 마음먹은 것은 문서(업장)가 된다"라는 말씀을 몸과 마음에 새기고 살아왔다. 책은 현 사바세계 중생들을 고해에서 건져 금생의 화엄세계를 누리기를 바라는 스님의 50년 회향 불사다.

"화엄세계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천지만물과 산천초목, 이 모든 것이다. 작게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 하나하나에서부터 크게는 수백 억 광년 저 멀리에 있는 무수한 별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화장장엄세계이다. 우리는 이들 모든 화장장엄세계에 무거운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

책은 '화엄세계품' 의 '이구염장 향수해', '무진광명륜 향수해', '금강염광명 향수해', '화장세계의 총결', '게송으로 거듭 밝힘' 을 통해 대중을 화엄세계로 이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지 일러준다.

"그 때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지나간 옛적에 세계 미진수겁을 지나고 다시 그 갑절을 지나서 세계해가 있었느니, 그 이름이 보문정광명이니라' "

책은 '비로자나품' 을 옮겨 적으며 비로자나불의 인연을 밝힌다. 비로자나불은 불가의 많은 부처님들을 아우르며 그 모든 부처님의 근본이 되는 청정법신을 말한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광명의 부처이며, 경전에서 볼 때 비로자나불은 〈화엄경〉의 주인이다.

미혹에 결박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일심으로 생각하고 맑은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으면 어디서든지 비로자나불을 만날 수 있다. 이처럼 많은 의미를 함유하고 있는 부처님이므로 그를 인격화하고 불격화하여 설명하려면 구원겁 이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나간 세상,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오랜 겁전에 승음(勝音)의 세계다. 그 세계에는 일체공덕산수미승운(一切公德山須彌勝雲)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나라에 대위광태자가 있어서 부처님을 섬기면서 온갖 불법(佛法)을 닦아 익혔다. 태자는 여러 생을 거듭하면서 여러 부처를 섬기며 수행, 고행, 난행, 체험, 공양, 찬탄, 체득하여 성불하게 되니 그가 곧 비로자나부처님이다.

종일 스님은 맺는말에서 "이상으로 〈화엄경〉 39품 가운데 화장세계품을 배경으로 비로자나품을 마무리합니다. 천지우주 삼라만상 진대지가 나의 전신체임을 확신하십시오."라고 했다.



괴산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상(보물 제433호)

일심삼관 종지로 회통한 〈능엄경〉 해설서



수능엄경통의 1 · 2
감산덕청 지음 / 장순용 역주
운주사 펴냄 / 2만7천원 · 2만5천원

교리와 세밀한 수행 과정까지
깊고 명료하게 해설한 주석서

〈능엄경〉 해설서 〈수능엄경통의〉가 우리말로 출간됐다. 책은 명나라 4대 고승으로 불리는 감산덕청 스님의 깊은 통찰력이 돋보이는 〈능엄경〉 주석서이다.

감산의 〈수능엄경통의〉는 불교의 근본 교리와 수행과정의 세밀한 부분까지 감산 스님 자신의 수행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능엄경〉을 깊고 명료하게 해설했다. 교리와 수행 양면에서 중국불교를 집대성한 감산 스님은 오대산에서 수행할 때 〈능엄경〉을 읽다 크게 깨닫고 자신이 깨달은 일심삼관의 종지를 널리 알리고자 해설서를 지었다.

〈능엄경〉은 〈금강경〉 〈원각경〉 〈대승기신론〉과 함께 우리나라 전통 강원의 사교과 과목으로 채택되어 수행자들의 교과서가 된 경전이다. 비록 위경 논란이 있지만 교리적 내용과 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정밀함으로 인해 예부터 수행자나 지식인들에게 널리 독송되며 한국불교의 수행과 신행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특히 선가에서 크게 환영을 받아 주로 선문의 스님들에 의해 많은 주석서가 쓰였으며, 우리나라 일부 선종 사찰에서는 수능엄다라니, 즉 능엄주 독송을 일과로 삼고 있을 정도다.

감산 스님의 〈수능엄경통의〉는 경전의 제목부터 살피고 있다. 흔히 〈능엄경〉으로 부르고 있는 경전의 제목은 19자(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엄경 ·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에 달하지만 오직 '수능엄' 세 글자만을 중시할 뿐이고 나머지 16자는 모두 뜻을 잡은 것이며, 제목을 일심에 갖춰진 체(體) · 상(相) · 용(用) 삼대(三大)의 뜻을 말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능엄경〉 〈대불정수능엄경〉 〈수능엄경〉 등으로 불린다.

본문은 석도안이 수립한 전통적인 분류 방법에 따라 서분, 정종분, 유통분으로 나누고 있다. 서분은 통서와 별서로 나누는데, 통서는 법회의 인연으로 어느 경전에나 있기 때문에 '통서' 가 된다. 별서는 이 경전의 유래를 천명하고 있다. 아난이 음실에 타락하는 비천한 일로부터 시작하는데, 생사의 세계 속에서 홀로 참(眞)과 대면한 자는 오직 애욕 하나의 일만이 중대할 뿐이니 이것이 생사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정종분은 '수증(修證)의 문을 크게 여는 것' 과 '미혹과 깨달음의 차별을 보이는 것' 으로 나눈다.

유통분은 공덕을 비교하여 헤아리고 그 얻는 복의 수승함과 그 수승한 이익을 총체적으로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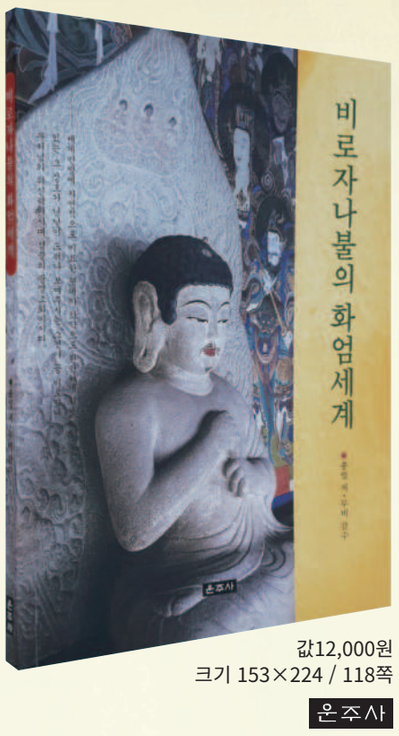
박재완 기자

비로자나불의 화엄세계



저자 권종일 스님

비로자나불이란?
불교에서는 수많은 부처님을 이야기한다. 역사상에 등장하였던 세존으로부터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아미타불, 약사불 등등이 그것이다.
그 모든 부처님을 아우르며 그 모든 부처님의 근본이 되는 **부처님이 곧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다.**
이처럼 많은 의미를 함유하고 있는 부처님이므로 그를 인격화하고 불격화(佛格化)하여 설명하려면 구원겁(久遠劫) 이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나간 세상, 말로는 이루 다 설명할수 없는 오랜 겁전에 승음(勝音) 세계가 있다.
그 세계에는 일체공덕산수미승운(一切功德山須彌勝雲)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나라에 대위광 태자가 있어서 부처님을 섬기면서 온갖 불법을 닦아 익혔다.
太子는 여러생을 거듭하면서 여러 부처를 섬기며 수행, 고행, 난행(難行), 공양(供養), 찬탄(讚歎), 체험(體驗), 체득(體得) 한 뒤 결국 成佛하게 되니 그가 곧 비로자나부처님이십니다.
법신 비로자나불은 現在 海印三昧 가운데 들어계시고 보현보살님이 비로자나부처님의 원력을 대신 대행하십니다.



값12,000원
크기 153×224 / 118쪽
운주사

구입문의 : 031-510-9077 권종일 스님

흉몽을 길몽으로 바꾸며 풍요와 복덕을 얻게하는 귀한 선물
천수경(千手經) 액자

인쇄물이 아니라 한 자 한 자 정성을 들여 모필로 써서 만든 것입니다.
붉은 비단에 금색원형으로 천수경을 적어 조형미와 더불어 품격까지 느껴져
주지스님 방이나 거실, 사무실 벽에 걸어놓기에 안성맞춤입니다.



· 작품크기 : 가로 45cm × 세로 45cm
· 바닥재질 : 비단(한지로 배접)
· 구입대상 : 스님, 신도님

천수경이란
천수경(千手經)은 관세음보살의 6번화신 중 하나인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을 신앙하는 경전이다. 천수다라니는 특히 티벳과, 네팔, 인도, 파키스탄은 물론 중국에 걸쳐 여러가지 이본(異本)들이 있는데 그 체제와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다라니의 내용도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송되고 있는 천수경은 가범달마(伽梵達摩)역의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대다라니경)을 모태로 한 것인데 우리말로 풀어쓰면 한량없는 손과 눈을 가지신 관세음보살님의 넓고 크고 걸림없는 대자비심을 간직한 큰 다라니경인데 천수다라니를 정성드려 모시거나 수지 독송하고 지키면 시방세계의 모든 불보살이 와서 증명하여 일체업장이 소멸되고 일체 악업과 중죄와 모든 장애를 여의케하며 일체의 청정한 법과 모든 공덕을 증장시키고 이롭고 안락하게 하며 모든 병과 두려움을 없애주고 일체의 귀신이 범접치 못하게 하고 모든일을 성취케하며 구하는 바를 만족케하고 특히 흉몽을 길몽으로 바꾸며 수명이 장수하고 풍요와 복덕을 얻게한다고 한다. 이와같이 천수다라니에는 온갖 공덕이 들어있어 그 대비신력과 위신력의 영험은 한없이 높고 그 신묘함은 불가사의하다고 하여 신묘장구 대다라니라 한다.

문의 055-291-7263, 010-3845-2446 (금액협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900번길 37-15호 도덕정사

한국 禪불교사 인물로 읽다



주목! 학술서 - 정운 스님의 〈인물로 보는 한국 선사상사〉

옛 선사들 행적 · 사상 조명
한국 선불교사 궤적 확인
한국禪 정체성은 '간화선'
도표 · 법맥도 일목요연 정리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역사는 한 집단이 걸어온 길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시작된 '불교'라는 역사의 궤적 속에서 뛰어난 수행자들은 불교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됐다. 불교사 연구에서는 인물 연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정운 스님의 〈인물로 보는 한국 선사상사〉는 제목 그대로 역사 속 선사들의 행적을 통해 한국 선불교사를 조명한다.

한국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은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을 종지로 하는 선종이다. 한국불교의 근간이 선이라고 본다면 선을 수행해 온 선사들의 삶이 곧 한국불교 역사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저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선종과 선불교 역사에서 뚜렷한 옛 선사들의 면모와 사상을 각종 자료와 현지답사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인물로 보는 한국 선사상사〉는 5장으로 구성됐다. 제1장은 이 땅에 선의 초석이 다져지는 시기, 즉 고대 동아시아 및 한국불교의 역사적 상황과 그 시대 선사들을 다루고 있으며, 제2 장은 이 땅에 선이 그 씨앗을 뿌리는 시기인 신라시대의 선사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주로 신라말 구산선문의 개산과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제3장은 한국불교가 찬란한 꽃을 피운 고려 시대의 선사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고려 마지막 국사인 환암과 마지막 왕사인 목암에 이르기까지 기라성 같은 선사들을 만나볼 수 있다.

제4장은 숭유억불의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한국불교의 맥을 잇고 발전시킨 선사들을 살펴보고 있으며, 제5장은 초의, 경허 등 조선 후기 및 근세 선사들의 행적과 사상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선사들의 다양한 삶의 형태와 수행의 면모를 보여준다. 선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자상승(師資相承)의 법맥을 이은 선사가 있는 반면 이와 무관하게 큰 성취를 보여준 선사가 있고, 국내에서 활약한 선사가 있는 반면 이역만리 타국에서 그 수행력을 인정받고 열반한 선사도 있다.

또한 중국 선종과의 법맥으로 볼 때, 한국 선불교의 주류를 이루는 임제종 법맥은 물론이고 홍주종 · 조동종 · 법안종 등 다양한 법맥의 선사들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이 책의 매력이다.

〈인물로 보는 한국 선사상사〉는 한국 선불교와 선사상의 다채롭고 긴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마치 핵심만을 간결하게 표현한 조감도를 그리듯 보여준다. 선사들 한 명 한 명의 삶과 사상의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한국 선불교의 전체상이 그려지게 된다.

본문 곳곳에 정리된 도표와 법맥도는 자칫 선사들 개개인에 매몰되어 한국선의 흐름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헤매지 않게,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서 있는 곳을 알려주는 이정표의 역할을 해준다.

또한 저자가 오랜 시간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 현지까지 직접 찾아다니며 찍은 사진과 현장감은 이 책의 또 다른 장점이다.

일련의 연구를 통해 저자 정운 스님은 한국선의 정체성이 '간화선'에 있다고 본다. 스님은 "우리나라는 이론적으로는 조사선이지만 수행방법 상에 있어서는 간화선"이라며 "나말여초에 조사선이 전개됐고, 보조지눌 · 진각혜심의 주도로 간화선이 보급됐다. 고려 말기에는 태고보우 · 나옹혜근 · 백운경한이 직접 송나라에 들어가 법을 받아와 간화선을 전개했고, 몽산덕이의 간화선 풍이 유행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서에 마지막에 기술한 승가교육 변화, 한국선 정립 등의 제언들은 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승인 저자가 종단에 던지는 화두이기도 하다.



국내 最古 '부석사 조사당 벽화' 보존처리 시작

국립문화재硏 벽화6점 이송
최신 기법 조사 · 연구 진행돼
오는 2026년까지 완료 예정



영주 부석사 성보박물관에 보관 전시 중인 국보 제46호 부석사 조사당 벽화. 박리, 박락과 표면 오염이 심각해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오는 2026년까지 보존처리에 들어간다.

국내에서 가장 최고(最古) 사찰 벽화인 국보 제46호 영주 부석사 조사당 벽화의 보존처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센터장 직무대리 박종서)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사찰벽화인 부석사 조사당 벽화의 보존처리에 착수한다"고 6월 18일 밝혔다.

경북 영주 부석사 조사당 벽화는 우리나라에서 화엄종을 처음 시작한 의상대사(625~702) 초상을 모신 부석사 조사당(국보 제19호)의 안쪽 벽면에 그려진 불교 회화로, 목재 골조 위에 흙벽을 만들어 다양한 안료로 채색한 그림이다. 벽화는 조사당이 건립될 당시인 1377년(고려 우왕 3년)에 그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벽화에는 제석천(帝釋天)과 사천왕(四天王), 범천(梵天)이 6폭으로 나누어 그려져 있으며, 고려 시대 대표적인 벽화로 평가되고 있다.

이 벽화는 일제강점기인 1916년 경 조사당에서 해체 · 분리됐고 6폭의 벽화는 각각 벽체 뒷면 일부가 제거되고 석고로 보강되어 나무보호틀에 담겼다. 표면의 균열부위에도 석고로 보존처리 된 바 있으며, 이후 부석사 무량수전(국보 제18호)과 보장각을 거쳐 지금까지는 성보박물관에 보관 · 전시되고 있다.

현재는 일제강점기에 사용된 보존처리 재료인 석고로 인해 백색 오염이 벽화면 전반에 발생하였으며, 과거 보존처리에 사용된 재료가 열화되면서 채색층의 박리(剝離) · 박락(剝落)과 표면 오염도 관찰되는 상태이다.

실제, 지난해 문화재청이 실시한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에서도 벽화의 보존처리 필요성이 제기됐고, 올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전면 보존처리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는 6월 2일부터 벽화 표면 보양작업을 시작해 벽화 6점을 포장했으며, 17~18일 양일에 거쳐 대전 소재 국립문화재연구소로 이송한다.

이송된 부석사 조사당 벽화는 오는 2026년까지 보존처리를 진행한다. 고려 후기 벽체의 구조와 벽화 제작기법에 대한 연구도 이뤄지며 일련의 연구성과는 심포지엄과 자료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불교환경, 포스트 코로나 핵심 요소"

〈불교평론〉, '환경재앙 극복' 특집 눈길

정성헌 "'공생' 코로나 회복코드"
남궁선 "'생명방생' 강령 만들자"
유정길 "사찰 생명공동체 형성"



환경위기는 위기 수준을 넘어 이미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촉발한 환경위기의 근본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다는 새로운 해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계간지 〈불교평론〉은 통권 82호에서 '환경재앙,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특집으로 다뤘다.

정성헌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 방안' 기고글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근본적인 대책은 적극적인 자연복원과 인간과 자연의 공존공생 양식을 이룩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생명의길, 대전환의 길을 함께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생각의 전환 △소유가 행복을 불러오지 않음을 깨닫는 생활의 전환 △지구촌 인류의 생각을 바꾸는 세상의 전환 △생명사회와 생명문명으로의 대전환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적극적인 나무심기, 유기농 중심 생명의 밥상차리기, 환경보전을 위한 아껴쓰기 등을 제시했으며, 정부에도 환경세 내지 탄소세를 신설하는 산업 구조변화 촉진도 촉구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남궁선 박사(동국대 불교학)는 '환경문제에 대한 불교의 가르침' 발제에서 "역설적으로 불교는 환경 악화 책임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은 '한국불교 환경운동의 역사와 미래'서 "과거 빈그릇 운동이나 삼보일배, 오체투지 운동도 불교를 기반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듯, 사찰 숲 지키기 운동이나 버드나무 심기 방생, 철새먹이 주기 방생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며 "실상사와 같이 농업 기반 마을공동체를 사찰에 따라 실천하는 새 모델 개발, 전지구적 활동과 네트워크 구축, 불교 생태주의 사상과 이념 개발의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번 환경 특집에는 반기성 케이웨더 예보센터장의 '환경재앙, 그 원인과 실상', 신승환 가톨릭대 철학과 교수의 '환경 · 생태 이론의 전개와 동향', 박병상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장의 '국내외 환경단체의 활동과 성과' 등 국내외 환경운동과 관련된 기고글이 실렸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32년 연구 결정체 〈역주 정법안장 강의〉

보광 스님, 6월 6일 역주 · 번역본 3,4권 펴내



前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이 32년간 역주와 번역해 온 〈역주 정법안장 강의〉 3,4권이 6월 6일 출간됐다.

〈역주 정법안장 강의〉는 보광 스님이 동국대 불교대학 선학과에 재직하면서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의 교재로 선택하고 역주와 번역, 강의했던 것을 묶은 것으로 2000년 6월 6일 1권이, 2012년 6월 6일 2권이 출간된 바 있다. 무려 8년 만에 진행된 이번 〈역주 정법안장 강의〉에는 도겐 선사의 법어에 나오는 출처를 자세히 밝혔고, 번역도 쉽게 되었으며, 강의는 한층 더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3권에는 정법안장 18 〈심불가득〉권에서 24 〈불교〉권 까지가, 4권에는 25 〈신통〉권에서 30 〈행지(하)〉권까지가 묶였다.

보광 스님은 지난해 동국대 18대 총장 퇴임 후 1년 동안 〈역주 정법안장 강의〉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매주 윤독과 교정, 증의, 색인 등을 진행해 왔다.

노덕현 기자

삶의 지혜를 일깨우는 진리의 말씀!

법구경



국문학자의 손길이 닿은, 적절한 현대어 선택과
운율을 고려한 번역! 늘 옆에 두고 경구처럼 읽고 되뇌면서
삶과 수행의 지남으로 삼을 가르침!

이종기 옮김/양장/360쪽/값 18,000원

명나라 4대 고승 감산대사의 주석!

수능엄경통의 1·2



불교의 철리와 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수행자들의
필수 지침서! '일심삼관一心三觀의 종지'로 원융회통한,
"교법의 준칙이요 선종의 정안正眼!"

감산 덕청 지음/장순용 역주/양장/1권 27,000원/2권 25,000원

한국에 처음 소개되는 제5대 뻰첸라마의 가르침!

보리도차제의

마르티 일체지로 나아가는 지름길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실천 수행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도이자 안내서!

뻰첸라마 롭상예쎄 지음/법장 옮김/양장/496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14세기 문수보살상서 복장불상 발견

日다이치지 본존불서
복장물 10여 점도 확인
CT스캔 조사서 드러나
창건주 원불 가능성도

박영빈 객원기자

14세기에 조성된 목조 문수보살상의 내부에서 다양한 복장물들이 발견됐다. 지난 6월 3일 일본 '나라신문' '아사히신문' '산케이 신문' 등 주요 언론들은 잠들어 있던 성보들의 재발견을 특별 보도했다.

일본 나라(奈良)시에 소재한 나라국립박물관 측은 지난 1일 조사발표를 통해 "X선 CT스캔조사를 실시한 결과, 14세기에 조성된 목조 문수보살상 내부에서 10수 점의 복장물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를 받은 문수보살상은 14세기에 조성됐으며, 교토부 키츠카와(木津川)시에 소재한 고찰 다이치지(大智寺)의 본존불이다. 다이치지 측은 "절에 전해오는 전승으론 이 불상은 나라시대의 고승 쿄키(行基) 대사가 통행에 곤란한 사람들을 위해 키츠카와 강에 놓았던 다리의 기둥으로 조성했다고 전한다"며 불상이 지닌 특별한 의미를 전했다.

다이치지는 지난 가을부터 본당 보수공사를 진행 중이며, 이를 계기로 문수보살상을 나라박물관 측에 위탁, 학술조사가 실시됐다.


x선 검사결과 숨겨진 문수보살상이 발견된 다이치지 목조문수보살상. 사진출처=나라신문

본존불인 목조 문수보살상은 사자를 타고 오른손엔 검을, 왼손엔 경전 두루마리가 올려진 연꽃을 들고서 당풍(唐風)의 의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다. 좌대를 제외한 문수보살상의 66.2cm 가량, 이 중 불상의 목 부분에서 역시 사자를 탄 모습의 또 다른 문수보살상이 복장된 사실이 밝혀졌다.

복장 불상은 사자좌를 제외하고 불상 본체의 크기만 2.7cm 가량의 극소형이며, 불감 안에 안치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불상이 모셔진 불감은 천으로 만든 주머니에 감싸져 있어 박물관 측은 "본래 승려가 몸에 지니고 다니는 원불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또 이 문수보살상은 사찰의 창건시기부터 본존으로 모셔왔다는 점에서 "복장된 불감과 문수보살상은 절의 창건주인 지신화상(慈眞和尙, 1231~1316)의 원불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지신화상은 14세기 초에 활동한 율사로 문수신앙에 열중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이치지를 창건하고 2년 후 입적했다.

문수보살상의 내부에는 두루마리와 여러 겹으로 접어서 포갠 종이뭉치들이 함께 납입돼 있는 사실도 밝혀졌다. CT스캐너의 반응을 토대로 나라박물관은 "안타깝게도 먹으로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문헌들은 방사선에 반응 하지 않아 내용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일부 문헌에서 금니 혹은 주사로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문헌들이 발견되었고 일부 글자를 판독할 수 있었다. 판독된 내용 가운데 〈금강경〉의 주석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경전도 함께 복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판독된 두루마리의 축에 육각형의 수정장식 등으로 장엄되어 있어 당시 매우 귀중하게 복장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를 담당한 야마구치 류스케 주임연구원은 "해당 불상에 대해 과거에 해체했던 흔적이나 기록이 있지 않아 조성 당시의 복장물일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귀중한 성과다. 복장물을 조사하는 것으로 불상의 명확한 조성 시기나 알려지지 않은 사찰의 역사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다.

현재 조사를 마친 문수보살상은 한시적으로 연구결과보고와 함께 나라박물관에서 특별 공개된다. 현재 박물관 측은 불상의 복장물에 대한 추가조사를 위해 다이치지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했다.

BBC, 달라이라마 단독인터뷰 화제

코로나19에 온라인 진행
화상회의 프로그램 활용


BBC가 공개한 달라이라마 온라인 인터뷰 캡쳐. 사진출처=BBC

지난 6월 13일 영국 공영방송 BBC가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인 달라이라마와의 단독 인터뷰를 진행해 화제다.

인도 북부의 다람살라에서 인사를 전한 달라이라마는 여러 아픔이 만연하고 있는 현 시국에 대해 "어떠한 비극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비는 보다 더 깊은 인간의 가치를 드러낸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인간의 깊은 가치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형제자매가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 자비심은 자연히 발현된다"며 지구의 모든 이들이 서로를 생각하고 보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수 85세를 앞둔 달라이라마는 "내가 나이가 많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젊으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 나와 같은 노인들은 그러한 젊은이들을 가르치면서 또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며 세대와 사회를 넘어선 공동체의 '일체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일체감을 통해 사회문제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환경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달라이라마는 내다봤다.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세계가 함께 바람과 태양 등의 재생가능한 친환경 에너지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지구 온난화를 촉진시키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벗어나야 한다"고 전했다

달라이라마는 기자가 마지막으로 질문한 환생과 후계문제에 대해 "나의 후계에 대한 문제는 나를 따르는 티베트인들과 제자들에게 달린 것이다. 사실 나 스스로는 나의 환생에 대해 큰 관심이 없다"며 웃어 보였다. 또한 "나는 다만 '달라이라마'라는 이름을 통해 인류에 공헌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호주, 티베트 노승에 훈장 수여 결정

84세 게쎄 따시체링 스님
포교 · 문화교육 공로 인정


오스트레일리아 훈장수훈이 결정된 따시체링 스님. 사진출처=글로벌 부디스트도어

호주에서 오랫동안 포교활동을 이어온 티베트 출신의 노승에게 '오스트레일리아 훈장(Order of Australia)' 훈장 수훈이 결정되어 화제다. 지난 6월 12일 해외불교전문 매체인 '글로벌 부디스트도어'는 이 기쁜 소식을 특별 보도했다.

호주연방정부는 6월 8일 영국여왕의 생일에 맞춰 2020년도 오스트레일리아 훈장(OAM) 수훈자 명단을 공개했다. 총 5급으로 나뉘어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훈장의 이번년도 수훈자는 총 933명, 그중 제 5등급인 메달(Medal) 수훈자 중 티베트 출신의 노승 게쎄 따시체링(84)스님의 이름이 올랐다. 호주에서 오랫동안 불교를 전파하고, 불교문화와 철학을 가르친 공로에서다.

티베트인이 오스트레일리아 훈장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 2007년 메달을 수훈한 남갤체링은 호주 티베트인 공동체 대표로, 호주에 정착한 티베트 난민들을 보조하고 티베트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전파한 공로로 수훈했다. 따시체링 스님은 두 번째 수훈자지만 불교포교와 문화전파를 공로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1959년 중국의 침공으로 인도로 망명한 따시체링 스님은 난민의 신분임에도 수행과 교학에 힘써 1984년 불교학 박사에 해당하는 게쎄 하람빠(Geshe Lharampa)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990년, 호주에 거주하는 티베트인들의 요청에 따라 호주로 이주해 포교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남인도에 소재한 밀교전문 강원인 규메사원의 방장소임을 위해 잠시 호주를 떠난 것 이외에 스님은 호주 브리즈번에 상주하고 있으며, '따시 캉마르 쌈둡링(TKSL)'이라는 불교사원을 건립해 포교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日불교, 젊은 스님들의 새로운 도전

신도 감소 · 고령화 극복위해
불교에 다양한 분야 접목시도

젊은 불교도의 감소와 기존 신도의 고령화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불교. 불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젊은 스님들의 다양한 도전들이 화제다. 지난 6월 12일 종교전문 매체인 '릴리전 뉴스'는 일본불교의 새로운 도전들을 보도했다.

'릴리전 뉴스'는 일본에서의 불교의 약세화에 대해 "일본에서의 불교는 우울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일본불교는 특히 죽음과 밀접해 '장례불교'라고 불리기도 한다. 일본의 급속한 세속화와 인구 감소로 불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일본의 교외지역에 위치한 사찰은 약 7만 5천 개소, 이 중 3분의 1만이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사찰의 경우 운영을 위해 스님들이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일반 직종에 취직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일본불교에선 젊은 스님들을 중심으로 불교의 부흥을 위한 다양한 도전과 혁신적인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스님들이 운영하는 바나 카페가 있다.


스님이 운영하는 '보우즈' 바에서 손님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출처=릴리전뉴스

최근 널리 주목받고 있는 시도 중 하나는 대중음악과 불교의 접합이다. 최근 〈반야심경〉을 노래한 작품으로 유튜브 조회수 280만회를 넘긴 야쿠시지 스님은 "불교의 가르침은 삶에 대한 노래"라고 말했다. 스님은 "사찰을 대대로 물려받는 전통이 너무나 싫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음악에 심취해 이내 밴드를 결성한 것이 음악활동의 계기"라고 전했다.

스님은 팝이나 포크송을 모티프로 불교의 가르침을 노래하다, 최근 염불을 현대적으로 노래하는 시리즈를 발표하고 있으며, 단독 콘서트와 유명 뮤지션들과의 콜라보레이션 등으로 일본 불교계와 음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통적인 예능으로 포교에 임하는 스님도 있다. 천태종의 츠유노 마루코 스님은 일본 전통 만담인 '라쿠고'를 이용한 포교에 나서고 있다. 마루코 스님은 다양한 성향의 불자들을 거리의 상인들에게 비유하며 각각의 가게가 어떻게 중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지 이야기한다.

마루코 스님은 "(옴진리교 사건 등으로) 많은 일본인들이 종교를 의심하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종교는 식사를 하는 것처럼 생활의 일부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며 만담으로 포교로 활용하게 된 계기를 말했다.

한편 상담을 통해 불교를 전하는 스님들도 등장하고 있다. 출가자의 기본 정신이 사람들의 고통과 고난을 함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상담가 스님들은 현재 일본내에서 인기가 높다. 자살예방 상담으로 유명한 네모토 이테츠 스님은 "젊었을 때 교통사고로 사선을 넘나들었던 경험이 있다. 그때 느낀 삶의 공허함과 의문이 지금의 출가로 이끌었다"며 혼자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해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민재 객원기자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부처님오신날 도량장엄등 설치 • 유지관리


연등 자동승강장치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 등


위 패


법당용 연등

공단연등

아크릴한지등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인쇄 주문접수 중

전선, 전구등 공사자재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독감 바이러스가 바꾼 종교사



이상근의
聖寶流轉

⑫ 민족종교 몰락과 불교의 성장



2012년 화마에 휩싸이기 전 내장사 대웅전. 보천교의 보화문을 해체해 옮겨 지은 것이다. 원래 2층까지 건물이었지만 해체 이운을 하면서 1층으로 고쳐 세웠다.

코로나19 때문에 강제 소환되는 역사가 몇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페인 독감'이다. 1918년 봄에 시작돼 1919년 여름까지 1년 넘게 유행한 이 독감은 전 세계적으로 5억 명이 넘는 감염자와 5000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기록했다. 당시 전 세계 인구가 16억 명이었던 걸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수치다. 치사율은 거의 10%에 육박했다.

그런데 스페인 독감과 관련한 흔한 착각이 하나 있다. 바로 스페인 독감이 스페인에서 발생했다고 하는 오해다. '스페인 독감'이 발발한 곳은 스페인이 아니다. 이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곳은 미국의 군부대였다. 동부인 시카고를 시작으로 서부인 캔자스시티 등으로 퍼져나갔다. 그런데 이 독감은 왜 '스페인'이라는 이름을 달게 됐을까?

당시는 1차 대전이 한창일 때다. 전시 중에는 적국에 이로운 상황이 알려지지 않도록 언론통제, 즉 전시 검열을 한다. 반면 스페인은 1차 대전 당시 연합국과 동맹국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았던 중립국이었다. 전쟁 보도뿐 아니라 급격하고 치명적인 이 독감 보도에 적극적이었다. 이에 독감을 다룬 스페인의 라디오와 신문을 접한 '연합국'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를 '스페인 독감'으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냥 '스페인 독감'이 되어버렸다.

여하튼 1차 세계대전 참호 속에서 급격히 확산된 이 바이러스는 아이러니 하게도 전쟁 종결자가 된다. 독감 피해가 급격히 확산되자 연합국과 동맹국 양쪽은 서둘러 평화협상을 마무리 짓는다.

1918~1919년 스페인 독감 창궐
韓도 상륙… '무오년 독감' 명명
당시 742만명 감염, 13만명 사망
불확실한 상황서 종교에 의지해


1937년 상량식을 마친 태고사(조계사) 대웅전 공사는 1938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사진은 1938년 모습.

스페인 독감과 무오년 독감

스페인 독감은 결국 1918년 그해 우리나라에도 상륙한다.

당시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의하면 전체 조선 인구 1678만 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42만 명이 감염됐다고 한다. 이중 사망자는 13만 명이다. 120~130명 당 한 명씩 이 독감으로 죽어나간 것이다. 학교는 일제히 문을 닫았고 회사도 휴업을 했다. 사람들은 스페인 독감을 가리켜 '무오년(戊午年) 독감'이라고 명명했다. 무오년인 1918년에 유행한 독감이라는 뜻이다.

당시 조선을 통치하고 있던 일본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군인 출신 하세가와 요시미치란 인물이 조선 2대 총독으로 부임했는데 정치와 관료 생활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자였다. 나중에 그는 한반도에서의 방역 실패와 이듬해 일어난 3.1 운동에 대한 책임으로 본국으로 소환돼 청문회에서 지탄을 받은 뒤 사임하게 된다.

이런 지경에서 사람들이 기댈 곳은 한 군데였다. 바로 종교다. 당시는 조선 붕괴에 따른 종교적 진공 상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조선총독부 통계연감에 따르면 종교 인구는 채 200만 명이 되지 않았다. 동학을 계승한 천도교가 100만 명으로 홀로 앞서갔고 개신교는 30만 명, 불교는 고작 15만 명이었다. 이 종교적 공백 상태를 비집고 민족종교 계열의 신흥종교가 우후죽순처럼 자라난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출범 후 어느 정도 교세를 유지하고 있던 신흥종교만 30곳이 넘는다. 이 중에서도 독야청청 급성장하게 되는 신흥종교가 있으니 차경석에 의해 1921년 전북 정읍에 본부를 두고 만들어진 '보천교'다.

앞에서 말한 대로 당시 민족종교 성장 배경에는 무오년 독감이 있었다. 개신교가 '의료'를 무기로 한반도 서북지역에서부터 강력한 신장을 기록하긴 했지만 민족종교의 포교 전략을 따라갈 수 없었다. 당시 민족종교들은 동학 당시부터 한 손에는 전염병에 대한 예언과 공포를, 한 손에는 위생 관념과 예방 방법을 가르쳤다. 여기에 보천교는 '태을주'만 외우면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다녔다.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은 너도나도 보천교로 몰려갔다.

믿기지 않는 얘기지만 당시 미국 국무부에 보냈던 밀러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때 보천교는 접주 55만 명, 신도 60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인구 1600만 명에 신도 수 600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 셋 중 한 명은 보천교 신도였다는 말이다. 물론 이 말을 곧이곧대로 다 믿을 수는 없다. 밀러가 보낸 보고서는 조선총독부 통계 자료에 근거했을 터인데 조선총독부의 통계자료라는 게 지금의 인구센서스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었으니 신빙성이 떨어진다. 아마 접주 한 명당 10명의 신도가 있다고 가상해 계산한 것이 아닌가 싶다.

보천교 십일전과 보화문

보천교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민족종교를 신봉하거나 연구하는 사람들은 보천교가 실제 민족정신을 개척했다고 평가한다. 독립운동의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자금줄이었다. 그 무렵 항일운동 관련 기사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보천교 147건, 기독교 23건, 불교 18건으로 보천교의 항일 운동 관련 기사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하지만 긍정적 평가 뒤에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무리수가 많았다. 재산 약탈은 물론 부녀자 강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기사 역시 보천교가 압도적이다.

여하튼 항일운동 때문이든 '사회적 물의' 때문이든 일제는 보천교 해산에 착수한다. 1936년 차경석이 사망하자 1937년 전격 해체가 진행됐다.

정읍경찰서 소속 수십 명의 경찰이 들이닥쳐 주요 간부를 연행한 것은 물론 성상과 제기, 벽화나 도금된 제단 등을 모두 철거한다.

철거가 끝나자 '재산처리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이때 보천교 정전인 십일전을 비롯한 2만 평의 부지에 있던 45채의 건물과 10여 채의 부속 건물이 경매에 들어간다.

잘 아는 얘기지만 이때 정읍에 있던 보천교의 정전 십일전은 총본산 건설 운동이 한창이었던 불교계에 팔려 현재 조계사 대웅전이 되었다.

증언에 따르면 당시 십일전에 들어간 건축 비용은 50여 만 원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유찰에 유찰을 거듭하다 불교계에 500원에 낙찰된다. 1937년 3월부터 십일전 건물을 답사하던 불교계는 십일전 매입을 결정하고 그해 10월 상량식을 갖는다. 사찰 건축에서 흔히 사용하지 않는 네 면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나 법당 바깥 면에 새긴 도교식 장식물 등은 그대로 보천교 십일전의 흔적이다.

불교계에서 매입한 다른 건물도 있다. 바로 보천교의 정문에 해당하는 보화문이다. 이 보화문은 1958년 내장사가 매입해 대웅전으로 사용했다. 원래 2층까지 건물이었지만 해체 이운을 하면서 1층으로 고쳐 세웠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12년 10월 알 수 없는 화재로 전소되고 만다. 현재는 옛 건물에서 돌기둥만 취해 새로 지어졌다. 다행히 불타기 직전에 답사를 갔던 적이 있어 그때 찍은 사진을 지금도 가끔 꺼내보곤 한다.

보천교 등 신흥민족종교계 부흥
일제 의해 보천교 해체 후 쇠락
민족종교 후퇴… 불교 쏠림 현상
현 상황서 종교지형 변화 주목을

민족종교 해체와 불교

일제에 의해 강요된 보천교 해체였지만 그 영향은 불교계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하나는 이전까지 지지부진하던 불교계 총본산 건설 운동이 마무리 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불교계는 중앙총무원과 중앙교무원으로 양분되어 있었는데 1925년 타협으로 조선불교중앙교무원으로 통합되었고 1929년 승려대회를 통해 제반 사항을 정비했다. 하지만 총독부가 통일 기관을 계속 승인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명목만 남아 있던 터였다. 그러다 1937년 보천교 건물을 매입하고 태고사(현 조계사)가 완성되면서 중심이 잡힌 것이다. 물론 일제의 협조도 있었다.

또 하나는 자의든 타의든 민족종교 계통의 종단들이 급격히 세력이 위축되면서 불교로의 쏠림 현상이 시작됐다는 거다. 조선총독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1920년대 불교 인구는 14만9천714명이었는데 1942년이 되면 36만2천487명으로 급속히 불어난다. 이후에는 더 가파른 성장을 하게 된다. 당시 민족종교를 이끌던 사람들 혹은 그 밑에서 공부했던 많은 인물이 불교로 '개종'을 하게 된다. 가장 상징적인 인물로 탄허 스님을 들 수 있다.

탄허 스님의 아버지는 보천교의 재무를 총괄하고 있던, 사실상 보천교의 2인자 김홍규였다. 물론 탄허 스님의 출가 연도는 보천교 해체 이전인 1934년이고 그 이전부터 여러 스님과 편지로 문답을 주고받는 등 탄허 스님과 보천교와는 애초에 관련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는 보천교의 지도자, 아들은 불교계의 거목이라는 '상징'은 당시 민족종교와 불교의 관계와 겹쳐 보이는 게 사실이다. 물론 당시 불교의 급성장을 이 한 측면만으로 모두 분석할 수는 없다.

여하튼 '독감' 하나 때문에 이렇게 멀리 왔다. 미국의 참호 속에서 시작된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 역사 그리고 종교 지형까지 흔들어 놓았다.

아마 이번에 창궐한 코로나19 역시 세계 역사, 우리 역사 그리고 종교 지형까지 어떻게든 흔들 것이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답은 없지만 지금처럼 흘러가서는 종교에 미래는 없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꺼내놓는 얘기다. 새겨듣자.

〈불광출판사 편집주간〉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개강일시** : 2020년 **7**월 **14**일(화)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공공원 뒷편 ☎(02)741-0495~6

부처님 계신 곳? 그대 있는 그 자리!



변택주의
다시 읽는 法頂 스님
⑫ 깨달음과 닦음 ②



길상사 창건 9주년 법회 후 대중들과 함께 하는 법정 스님의 생전 모습. 법정 스님은 우리 사회와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불교의 수행이라고 강조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원각도량하처(圓覺道場何處) 현금생사즉시(現今生死卽是)"

해인사 법보전 기둥에 걸려 있는 법문이다. 석두 스님이 깨닫고 나서 지었다고 알려진 글로 스승인 남전 스님이 나무에 새겨 걸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흔히 '원각'을 깨달음이라 풀어 "깨달음은 어디 있는가? 나고 죽는 이곳이 바로 그 자리"라거나 "깨닫는 도량은 어디 있는가? 나고 죽는 이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푼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전율이 흘렀다는 법정 스님은 '종교 본질이 무엇이고 그 설 자리가 어디인가?'라고 받아들여 "부처님 계신 곳이 어디인가. 지금 그대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라고 풀었다. 거슬러 올라가면 "한 생각 맑게 일으킨 마음이 곧 도량"이라는 보조 지눌 스님이 남긴 말씀 줄기에 가 닿는다.

"부처님 계신 곳이 지금 그대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라는 말씀을 "하느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란 다른 종교 말씀처럼, 부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로 받아들이고 말면, "참다움을 드러내 스스로 빛내라"하는 부처님 뜻에서 십만 팔천리 벗어난다. 스승이 세운 절 길상사 일주문에 "신광불매 만고휘유(神光不昧 萬古徽猷) 입차문래 막존지해(入此門來 莫存知解) 어디에도 견줄 수 없이 거룩한 빛이 어둠을 헤치고 오래도록 빛나니, 이 문에 들어서면서 알음알이를 두지 말라"는 말씀이 적바림 되어있는 까닭이다.

증오란 무엇인가?

우리는 깨닫는다고 하면 흔히 형이상, 경험을 뛰어넘어 그 무엇인가에 가닿아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곤 한다. 그러나 세종은 불경을 우리말로 풀면서 '깨달을 각(覺)'을 '알음'으로, '헷갈릴 미(迷)'를 '모름'으로 옮겼다. 쉽다. 너무 쉬워서 왠지 싱겁다고 여기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아는 것'이란 무엇일까? 머리로 헤아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헤엄칠 줄 안다는 말과 운전할 줄 안다는 말을 떠올려보면 금세 와 닿을 것이다. 박태환 선수가 헤엄치는 것을 분석해 학위를 딴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박태환 선수처럼 헤엄을 잘 칠 수 있을까?

성철 스님이 증오와 해오를 가르면서 "밥 이야기를 아무리 해봤자 배가 부르지 않고 밥을 먹어야 하듯이, 스스로 마음을 닦아서 자성을 깨쳐야 성불할 수 있지 언어와 문자로는 성불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한 까닭이다.

점수란 무엇인가?

스승이 꼽은 점수(漸修), 거듭해야 하는 수행은 '닦을 수(修)'와 '할 행(行)'이 모여 빚은 낱말이다. 무엇을 닦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인가? 마음을 닦아 이웃을 보살피며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마음은 어떻게 닦아야 할까?

스승은 2006년 겨울 안거를 푸는 법석에서 "우리는 흔히 마음을 닦는다고 하는데 마음은 무엇으로 닦는가? 마음이 눈에 보이면 손으로 문지르거나 걸레로 훔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닦는다는 말은 관념에 빠진, 모호한 표현이다. 제대로 표현한다면 '마음을 쓰는 일'이다. 순간순간 마음 쓰는 일이 곧 수행이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이 꽃처럼 피어날 수 있고, 꽉 막힌 벽을 이룰 수도 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겪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내가 마음을 옹글게 쓰고 있는지 잘못 쓰고 있는지 바라봐야 한다. 바르게 써야 바르게 닦인다. 미운 사람을 부처나 보살처럼 맞이해야 쌓인 업이 녹는다"라고 말씀했다.

스승은 1998년 〈보왕삼매론〉을 강론하면서 "신앙생활에 예습은 없다. 하루하루 정진하고 익히는 복습이다. 종교 체험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비슷하게 되풀이되는 복습으로 얻어진다.

복습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어제까지 익혔던 정진은 어제로써 끝난 거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했다.

스승은 또 "깨달음을 얻으려고 수행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깨달음은, 굳이 얘기하자면 보름달처럼 떠오르는 것이고 꽃향기처럼 풍겨 나오는 것. 수행하는 것은 그 깨달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종교여행은 시작은 있고 끝은 없다. 늘 새롭게 출발할 뿐이다. 그 새로운 출발 속에서 향기로운 연꽃이 피어난다"라고 말씀했다.

> **'원각'에 대한 스승 가르침**
> **'나'와 '너' 구분없음서 시작**
> **참회서 시작하는 '돈오점수'**
> **평등사회 구축의 밀알되길**

어제 밥을 먹었다고 해서 오늘 밥을 먹지 않을 수 없듯이 어제 그 사랑은 어제로 끝났으니 오늘은 또 새롭게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는 것이 바로 점수다.

스승이 이토록 돈오점수 사상을 깊이 가지게 된 계기가 어디 있을까? 〈영혼의 모음〉 〈그 여름에 읽은 책(1972)〉이란 꼭지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8, 9년 전이던가, 해인사 소소산방에서 〈화엄경〉 '십회향품'을 독송하면서 한여름 무더위를 잊은 채 지낸 적이 있다. 그해 운허 노사에게서 〈화엄경〉 강의를 듣다가 '십회향품'에 이르러 보살의 지극한 구도 정신에 감읍한 바 있었다. 언젠가 틈을 내어 '십회향품'만을 따로 정독하리라 마음먹었더니 그 여름에 시절 인연이 도래했다."

스승은 그해 여름 더러는 목청을 돋우어 읽기도 하고 한 자 한 자 짚어가며 묵독하기도 하면서 20여 차례나 독송했다고 한다.

스승이 풀어낸 〈화엄경〉 '십회향품' 제8회향에는 '사랑'이란 낱말이 모두 열일곱 번 나오고 '회향'은 열여덟 번, '평등'도 열세 차례나 나온다. 제가 쌓은 공덕을 세상에 풀어 돌린다는 회향은 그대로 사랑을 일컫는 것이니 두 낱말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평등은 어째서 거듭나올까? 오른손이 왼손에 난 상처에 약을 발라 주고도 생색내지 않듯이,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니 얻은 사랑을 돌리는 '나'나 그 사랑을 받는 '그대'나 다 한 가지에서 나온 잎새이기 때문이다.

이웃 사랑이 '점수(漸修)'

이처럼 스승은 '돈오', '네가 바로 나로구나.' 하는 바탕에서 '점수', '너를 살릴 때 비로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여겨 한 가지에서 나온 잎새인 이웃을 거듭 사랑하는 것이라고 풀어냈다고 새긴다.

성철 스님은 1982년 스승과 대담에서 "흔히 '용서를 하자'고 하는데, 불교 근본 사상에는 용서란 없습니다. 용서란 내가 잘하고 남이 잘못됐다는 것인데,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것이며,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남의 인격을 근본적으로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설사 어떤 사람이 칼로 나를 찌른다고 할지라도 찌르게 한 근본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참회'를 해야지 저 사람을 '용서'하다니요(설전)"라고 말씀한다. 이 또한 평등에서 나온 말씀이다. 이로 보아 옹근 깨달음에 방점을 둔 성철 스님은 돈오돈수를, 본디 오롯한 깨달음을 거듭 펼쳐 사랑하기에 초점을 둔 법정 스님은 돈오점수를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 하고 조심스레 짚는다.

성철 스님이 열반에 드시고 나서 스승(법정 스님)이 쓴 추모사에는 1960년 성철 스님을 찾아 뵈었을 때 받은 인상이 고스란하다.

"불교사전 편찬 일로 자문을 구하려고 운허 스님을 모시고 찾아갔다. 그때 스님이 살던 방에 산비둘기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나자 비둘기가 날아와 내 어깨에 앉았다. 무섭고 엄하다고 알려진 스님이 한 방에 비둘기를 거느리고 계시는 걸 보고 친화력이 내 마음에 전해왔다."

여기서 성철 스님에게 〈선문정로〉를 펴낸 까닭(1982년 스승과 대담)을 듣는다.

"불교란 것의 근본은 깨달음에 있고, 깨달음은 선에, 선은 견성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깨달음과 견성 자체에 대한 표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누구든지 참선을 시작하고는 한 사흘도 못돼 다 견성해 버리고 성불해 버려요. 불교 하는 사람 중에 견성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이처럼 불교의 근본이 흔들리면서 종단에 큰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아니, 혼란이 와 있습니다.…그래서 내가 아무리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 가지를 생각한 끝에 불교의 장래를 위해서 어떤 '표준'을 세워야 하겠다 싶었어요. 내 개인 생각보다는 고불고조들은 어떻게 견성했는가, 어떻게 공부를 해서 어떻게 말씀을 했는가, 그 법문들을 여기저기서 수집해 모으고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견성이란 이런 것이지 그냥 견성이 아니다(설전)'라고 책을 낸 겁니다."

스승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다. "나는 종교 종파주의에 관심이 없다. 또는 어느 한쪽 주장만을 가지고 전체인 것처럼 내세우는 분파주의 불교에도 관심 두고 싶지 않다. 나는 깨달음과 닦음에 대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주장을 했는지에 별로 관심이 없다. 그보다는 순간순간 내 삶 안에서 그 깨달음과 닦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겪고 몸소 지어 가느냐에 마음을 기울이고 싶다(1990)."

우리는 모두 달라서, 같은 말씀을 놓고도 다르게 느낀다. 우리는 서로 달라서, 같은 자리에 있더라도 다르게 받아들인다. 우리는 참으로 달라서, 같은 일을 맞닥뜨리더라도 다르게 헤아리며 풀어간다. 그래서 현대를 다중이 이끄는 시대라고 한다. 군중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개개인 특징이 없어지듯이 저마다 개성이 사라진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러나 다중은 제 생각이 뚜렷한 개개인이 그때그때 떠오르는 사안마다 자유롭게 뭉치고 흩어지며 뜻을 펼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안팎, 앞뒤, 위아래, 빛과 어둠, 있음과 없음이 서로 받쳐주듯이 서로 다름이 어우렁더우렁 빚어가는 바로 그 자리에 부처님이 오신다. 다중이 이끄는 민주주의 시대, 내남직없이 두루 아우를 수 있는 품만이 누리 결을 곱게 빚을 수 있다.

〈법정 스님 눈길〉 저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불성론, 인성론에 대한 불교적 관점



현견 스님의
중국 선 문화기행 Ⅱ

⑫ 불성론 및 유가의 심성론



그림 · 강병호

불교의 심성론은 다른 말로 불성론을 말한다. 불성론은 실제로 인성론에 관한 문제로서, 인성론에 대한 불교적인 관점이다. 인성(人性)은 사람 본질의 속성을 말한다. 인성을 외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회성 문화성 경제성 등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 볼 수 있다. 반면에 내적인 각도에서 보면 인성은 그 사람의 본질 성향 등을 나타낸다. 때문에 인성론에 대한 문제는 사람의 근본적인 본질을 규명하는 명제이다. 선악은 선천적인가? 후천적인가? 등등 많은 문제를 제기해 볼 수가 있다.

전국시대 후기 인성론 문제에 대한 제기는 곧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탐구로서,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각종 감정 및 행위에 관한 탐구이기도 했다. 특히 선악에 대한 인간 행위가 전체의 사회 정치 문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탐구 내지 탐색은 곧 인간의 속성인 본질을 규명해 보는 것이기도 하다. 이후 중국 사상계에서는 이 인성 문제에 대해서 끈을 놓지 않고 선과 악의 관계 및 선악의 기원 등 각 방면에서 연구를 이어갔다.

인성론은 중국사상사에서 매우 중요한 명제이다. 중국사상사에서 처음으로 "인성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시기는 춘추전국시대이다. 춘추시기 일찍이 공자는 "성상근, 습상원(性相近, 習相遠)"을 말했다. 즉 인성의 형성과 객관적인 사회 환경과의 관계를 해석한 것으로, 이 점은 당시 사회에서 이미 인성문제를 다루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즉 인간의 본질과 속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공자는 사람의 본질과 속성 및 선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한 적은 없다. 공자의 제자인 자공(子贡)은 "선생님이 천성과 천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贡曰, 夫子之文章, 可得而闻也, 夫子之言性与天道, 不可得而闻也)"고 하고 있는데, 이 말은 곧 공자는 인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는 뜻이다.

전국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인성문제에 대한 탐구와 발전이 있게 되었다. 당시의 사상가들은 사람의 본성에 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인성에 대한 선악의 문제도 이때에 이르러서 논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각양각색의 인성론에 대한 토론과 연구가 성행하기 시작했다. 인성의 선악문제에 관해서 당시 사상계의 대표적인 학설은 '성선설(性善說)'과 '성악설(性惡說)', '유선유불선(有善有不善)과 무선무불선(無善無不善)'으로, 즉 '선(善)이 되기도 하고 불선(不善)이 되기도' 하는 등의 관점이 논의되고 있었다.

맹자의 성선설의 핵심은 사람과 짐승의 차별점은 바로 자각할 수 있는 도덕적 관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는 '사단설(四端說)'을 제시해서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한 성품인 '사단사심(四端四心)'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주장했다. 즉 '사단설(四端說)'이란 '측은지심은 인의 시작이며(惻隱之心: 혹은 同情之心, 仁之端也) 수오지심은 의에 시작이며(羞惡之心(수치심), 義之端也) 사양지심은 예의 시작이며(辭讓之心 · 겸손겸양하는 마음, 禮之端也) 시비지심은 지혜의 시작(是非之心, 智之端也)이다"라고 했다. 이 사심(四心)은 인의예지(仁義禮智)를 가리키며, 인간이 천부적으로 구비하고 있는 도덕적 범주의 발단이 된다고 여겼다. 때문에 이 사단(四端)은 모든 사람들의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告子上〉에서 "사람의 성은 선하다.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는 이치와 같다. 사람에게 불선(不善)이 없다. 물이 아래로 흐르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하기도 했다. 참고로 원래 공자가 처음으로 '仁義禮'를 제시했고, 맹자가 '仁義禮智'로 확충을 했고, 한나라 때 동중서가 '仁義禮智信'을 오상(五常)으로 확장시킨 것이다.

맹자와 정반대로 '성악설'을 주장한 전국시대의 걸출한 인물인 순자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보았다. 그는 '성선설'은 인위적인 것이라는 관점이다. 그가 말하는 사람의 본성은 당연히 자연적인 생리적 현상인 속성을 가리킨다. 즉 배고프면 밥을 생각하고, 추우면 따뜻한 옷을 필요로 하고, 피곤하면 쉬고 싶은 생각을 하는 것 등은 모두 인간의 자연적인 반응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당연히 호리오

'인성론', 중국사상사의 중요 명제
춘추전국시대부터 처음 연구 시작
맹자 성선설 · 순자 성악설 등 다양
불교는 出世觀이며 유가는 入世觀

해 추리피해(好利惡害, 趨利避害) 즉 "이익을 추구하는 면과 해로움을 피하는 면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눈은 미색을 보려하고, 귀는 좋아하는 것만 들으려 하고, 입은 맛있는 것을 좋아하고, 마음은 이익을 좋아 하고, 신체는 안일과 편안함을 좋아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반응은 모두 인간의 속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른바 善이라는 것은 모두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인위적이라는 것이다. 〈순자〉 '성악편'에서 "사람의 성은 악하다. 그 선이라는 것은 인위적이다(人之性惡, 其善者僞也)"라고 했다. 때문에 그는 선천적으로 형성되는 도덕관을 부정하면서, 후천적인 도덕을 위한 교화 작용을 강조하였다. 즉 "선천적인 본성을 변화시켜서 후천적으로 인위적인 것을 일으키게 한다(化性僞起)"는 것이다.

이외도 중국 철학사에서 다양한 인성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즉 다양한 각도에서 인성론 연구를 진행했다. 당시 고자(告子)는 "생지위성(生之謂性)"이라고 하면서, 인성에는 "선과 불선의 구분이 없다(性無善無不善)"고 보았다. 즉 사람이 나면서부터 선성(善性)을 구비한 것도 아니고, 선악(善惡)은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했다. "마치 물이 동서가 없듯이(水无分于东西), 성도 善과 不善을 나누지 않는다(性也, 无分于善不善)"고 했다. 곧 인성은 흐르는 물과 같다고 보았는데, 물은 어느 한곳으로 흐르면 계속해서 그 쪽으로 물길을 따라가는 것과 같다고 여겼다. 예를 들면 동쪽으로 인도하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인도하면 서쪽으로 흐르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사람의 본성도 역시 그렇다는 것이다. 본래 선악이 결정된 것이 없는 관계로 주어진 환경의 영향에 따라서 선도 악도 될 수 있다고 했다. 때문에 완전히 후천적인 환경과 교육이 선악을 결정짓는 다고 보았다.

심성설에 대한 또 다른 관점으로 한나라 때 양웅(揚雄)은 성선악혼(性善惡混)을 주장했다. 그는 "사람의 성은 선악으로 섞여있다. 그 선을 닦으면 곧 선인이 되고, 그 악함을 익히면 곧 악인이 된다.(人之性也善惡混, 修其善則爲善人, 修其惡則爲惡人)"고 했다. 즉 그는 인성에는 선악의 두 가지의 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모두 선척적으로 구비한 것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후천적인 학습과 사회적인 환경 등 기타 요인으로 인해서 선한 요소가 선한 쪽으로 발전하면 선인이 되고, 악한 요소가 악한 쪽으로 발전하게 되면 악인이 된다는 논리이다. 또 그가 강조하기를 "배움은 성을 닦는 것이다(學者所以修性也)"라고 하면서, "배우면 곧 바르게 되고(學則正), 그렇지 않으면 곧 사가 된다(否則邪)"고도 했다. 그의 이러한 관점은 공자가 말한 "성상근야(性相近也), 습상원야(習相遠也)"를 좀 더 깊이 발휘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국사상사에서 이러한 인성론 내지 심성론은 대부분 어떻게 하면 성현군자가 되는가 하는 것과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규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사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인성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위정자들의 인성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즉 한 나라의 지도자의 인성에 따라서 그 나라의 사회전체가 진보할 수도 퇴보할 수도 있다. 심지어는 개인들의 일상생활에도 깊은 영향을 준다. 때문에 유가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을 반영해서, 교육을 통한 인성을 개발해 사회적 가치로 활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 사회적 가치는 보편타당한 것이 되어야 하고, 실제로 일상생활에 적용이 되었을 때 실용성이 있어야 했다.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인간을 육성하는 것으로 '성현군자'라는 표식을 만들었다. 성현군자의 규범은 도덕적으로 높은 소양과 품성을 구비해야 했다.

유가는 군자의 덕목이자 사회적 가치로서 '자기위인원칙(自己爲人原則)', '위인처사적원칙(爲人處事的原則)', '자기적위관지도(自己的爲官之道)'를 요구했다. 즉 만약에 조정에서 벼슬을 하게 되면 반드시 조정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하고, 동시에 황제나 관료가 불의를 일으키면 이의를 제기해 반드시 바로 잡아 정의를 실천해야 하고 만약에 지방에서 관리가 되면 반드시 민생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하며 만약에 관리가 안 된 지식인이면, 그 사회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사회에 공헌을 해야 한다. 이것은 유가의 가치이자 덕목이고 목표로서, '천하흥망, 필부유책(天下興亡, 匹夫有 · 나라의 흥망성쇠는 밭을 가는 농부에게 조차 책임이 있다)"라는 말로 귀결된다. 이것은 바로 유가에서 인성을 중시하는 목표이자 이상세계인 대동세계를 이루는 표준이었다. 또 유교는 군자로서 선택할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도덕을 묻는 자는 공명을 구하지 말 것이며(問道德者不計功名), 공명을 묻는 자는 이익과 관록을 구하지 말라(問功名者不計利祿)"고 했다. 이러한 사상적 행위의 근저에는 인간의 도덕적인 수양으로 성품을 완성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정리하자면, 불가나 유가 모두가 심성을 논했지만, 어느 과정에서는 일치하는 관점도 있지만, 추구하는 목적과 이상은 완전히 다르다. 유가의 심성론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도덕적인 수양내지 전인적인 인격의 도야 내지 품성에 대한 완전함을 추구해서 성현군자가 되는 것을 논했다. 동시에 성현군자 역시 현실에서 이상을 실현하는 것으로 입세(入世)의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다. 반면 불교의 출발점은 출세(出世)로부터 시작한다. 물론 불교도 역시 도덕적인 인품 내지 인성을 육성하기를 장려한다. 하지만 불교의 이상은 철저하게 자기의 성품의 본질 및 근원처를 찾아서 대지혜 광명을 발현하는데 목적과 의의가 있다. 게다가 대승불교의 목적은 깨달음을 이룬 후에는 반드시 다시 현실로 회귀하는 보살도정신을 주장한다.

〈동국대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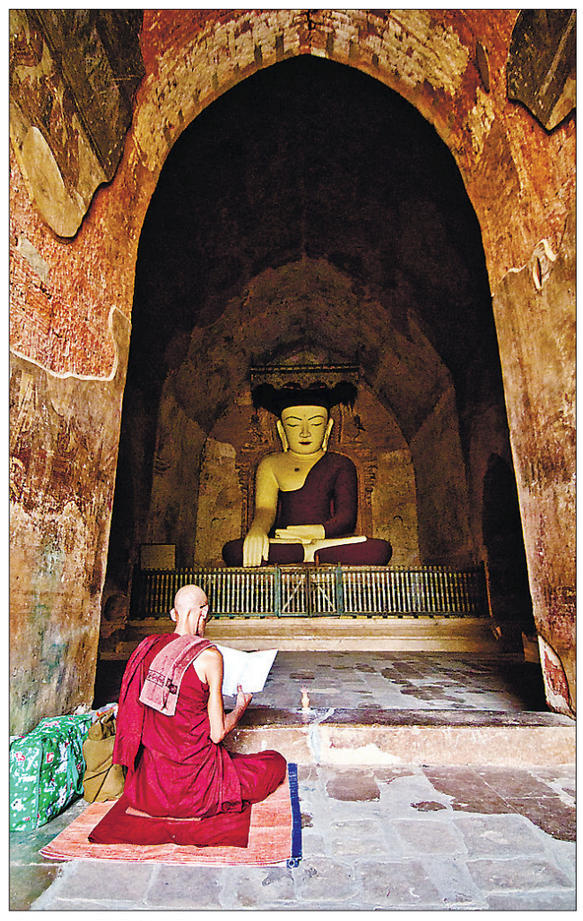
승단, 지위 막론한 최고 예경 대상



최재희의
비긴어게인 미얀마

⑫ 미얀마 승단 과거와 현재 1





미얀마 담마스쿨은 사찰교육기관이다. 바간 시대 등 과거에서부터 승단은 미얀마 사람들의 교육을 책임졌으며, 이를 통해 모든 미얀마 백성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했다.

우리나라에서 스님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여자 옆에 스님이 앉으면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까?'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전혀 아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혹은 '스님이 만석인 버스에 승차했다면 누군가가 비켜줘야 할까?' 라고 묻는다면 '불자라면 비켜줄 수 있지만 반드시 비켜주지는 않을 것 같다' 는 대답이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미얀마에서 같은 질문에 우리나라식으로 대답을 한다면 동공 지진을 일으키는 미얀마 사람들의 눈동자를 보게 될 것이다.

우선 미얀마에서는 스님 옆에 여성이 함께 앉는 것은 사회적으로 금기시 되어 있다. 맨 처음 미얀마 불교문화를 몰라 큰 결례를 한 적이 있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얼굴이 붉어진다. 2015년 미얀마 큰 스님이신 시따구(Sitagu) 스님이 한국에 방한하셨을 때 스님과 사진을 찍기 위해 나란히 옆에 서자, 내 주변에 있던 미얀마 사람들이 일제히 큰소리로 만류하며 무릎을 꿇게 했던 적이 있다. 처음엔 무척 당황했지만, 스님 옆에 여성이 나란히 서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고 난 후 스스로가 무척 부끄러웠다.

그러고 나서 미얀마 친구들에게 스님에게 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금기사항을 물어봤는데 아주 흥미로운 대답이 돌아왔다. 제일 신기했던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였다. '스님 옆에 여성이 앉을 수 없다' 는 버스를 탈 때도 적용된다. 여성은 스님 옆자리에 앉을 수 없고 버스마다 스님 좌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만약에 스님 3명이 같이 버스에 탔는데 자리가 없다면, 일반 사람들이 자리를 반드시 양보해야 한다. 만약 일반 사람 중 남녀가 앉아 있었다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먼저 스님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 왜냐하면 여자는 스님 옆에 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승단, 미얀마 모든 계층의 스승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시절 재가자 학생들과 스님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져 새내기 배움터, 추계답사, 연등회, 차담 행사 등을 자유롭게 했던 나에게는 신선한 문화 충격이었다. 스님들과 대화도 잘 나누고 친하게 지냈던 나는 오히려 많은 스님에게 칭찬을 받았는데, 미얀마에서는 한국과 같이 행동을 했다가 정말 뭇매를 맞을 정도이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 어떤 이유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재에도 이러한 사회적 규범이 당연한 걸까?' 를 고민하다 미얀마 역사에서 마침내 그 정답을 찾았다.

미얀마에서 스님은 사회적인 계층이 가장 높다. 미얀마에서는 '부자보다는 정치인, 정치인보다는 스님' 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스님들은 많은 사람의 존경심을 받는다. '미얀마에서 제일 똑똑한 미얀마 사람들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절' 이다. 미얀마 출가자 중에는 엘리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인식은 미얀마 바간 왕조시대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변하지 않고 전해지고 있다.



담마스쿨의 모습.

예부터 교육 · 법관 역할 담당
국가와 백성간 중재자 역할도
왕보다 높은 지위로 존경받아
국정 운영의 지혜 조언하기도
스님 곁에 여성은 금기로 제한

미얀마 테라와다(Theravada) 승단의 시작은 바간 시대의 제1대 왕인 아노야타(Anawrahta) 때부터 시작되었다. 신아라한(Shin Arahan)은 아노야타 왕의 왕사(王師) 역할을 했다. 자연스럽게 백성들은 왕의 스승인 스님을 자신의 스승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왕보다 더 큰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 미얀마의 승단은 왕의 왕사 역할을 넘어 백성들의 스승 역할도 했다. 바간 지역 전역으로 퍼진 승단은 각 마을의 절을 통해 부처님의 경전을 가르쳤다. 경전을 읽기 위해 알아야 할 필수적인 언어와 함께 불교적 가치관을 가르친 것이다. 이처럼 승단은 미얀마의 교육도 담당했으며, 승단 교육자의 역할은 현대 미얀마에서도 '담마스쿨(Dhamma school)' 이라는 사찰 교육기관을 통해서 현존하고 있다.

교육자로서 스님들의 역할은 미얀마 사회에 뚜렷한 교육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스님들의 교육을 통해 어려운 미얀마 문자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사람들이 글자를 읽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영국에 식민지 지배를 당하던 시절, 영국 사람들의 조사에 의하면 미얀마 사람들의 문맹률이 영국 사람들보다 현저히 낮았다고 한다. 현대 사회만큼 정부의 중앙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던 바간 시대와 같은 시대부터 승단의 교육자 역할을 통해 모든 미얀마 백성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었다.

미얀마 승단은 교육자 역할을 넘어 미얀마 왕조를 구성하는 강력한 주축 구성원이기도 했다. 왕은 국가에 대해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자신의 스승인 스님에게 국정운영에 대한 지혜를 구하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국정 운영에 반영됐다. 14세기 미얀마 문헌에 따르면 왕의 상징인 '흰 우산' 도 왕사라면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왕보다도 더 높은 권위를 갖고 있었다. 특히 파고다 위치 선정 · 경전 암송대회 · 국가 행사의 길일 등은 12명으로 구성된 스님들에게 반드시 자문을 구했다.

승단이 가진 사회적 권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승단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했다. 현재는 사법기관이 잘 정비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미얀마 승단이 사법기관에 준하는 역할도 담당했다. 자신의 신도가 범죄를 저지른 후 재판을 받게 되면 피고가 된 신도를 위해 선처를 구할 수 있었고,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의 사형수를 구할 수 있는 힘도 있었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살아난 사형수들은 절에서 평생 참회를 하며 봉사로 삶을 마감했을 정도로 스님들은 미얀마 백성들에게 있어 변호사와 판사의 역할도 했었다.

백성들과 국가 간의 정책으로 인한 갈등이 빚어지면 미얀마 승단은 중재자 역할을 하기도 했다. 국가가 세금과 같은 문제로 백성들에게 새로운 정책을 제시할 때는 승단을 통해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하여 불만이 누그러지게 하였다. 민심을 잃지 않아야 했던 왕들은 국민들의 절대적 신뢰 대상인 미얀마 승단의 인정을 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반대로 백성들은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힘들 때는 승단에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였고, 승단은 백성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국가의 최고 결정권자인 왕에게 전달해 백성들의 힘든 상황을 덜어주었다. 미얀마 승단의 중재자 역할은 백성과 지도자 사이를 넘어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적인 역할로도 확대되었다. 12세기경 미얀마가 스리랑카와 외교 관계가 악화됐을 때 '미얀마 평화 승단 사절단' 을 통해 두 나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계기가 됐다. 19세기에도 미얀마와 태국의 외교 관계 회복을 위해 양국의 '승단 사절단' 이 조직되기도 했었다.

정부 운영의 주축 · 중재자 되기도

바간 왕조시대부터 미얀마 승단은 미얀마 국민들의 든든한 교육자, 왕의 스승, 백성들의 대변인, 준사법기관의 역할, 외교관 등과 같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오면서 왕을 포함한 미얀마 국민들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존경을 받아왔다.

왕보다 더 큰 권위를 지니고 있었지만, 왕 위에 군림하지 않았다. 최고 권력자에서부터 백성들의 스승 역할을 하면서 그들에게 지혜의 그늘을 선사해주었다. 미얀마에는 '스님의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다. 미얀마 사람들이 미얀마 스님, 그리고 승단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알 수 있다.

간혹 테라와다 불교를 마하야나 불교와 비교하면서 "테라와다 불교는 자신의 깨달음만 추구하고 대승적인 면이 없다"며 비판하는 사람들을 본다. 미얀마에서 유학하면서 '글' 로만 배운 지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느꼈다. 미얀마에서 살아 숨 쉬는 테라와다 불교 또한 대승불교의 면도 포함하고 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필요한 존재인 스승의 역할을 하며 미얀마 사람들의 삶 속에서 따뜻한 가슴을 이웃과 나누는 일을 하는 미얀마 승단을 누가 이기적이라고 비판할 수 있을까?

〈양곤대 박사과정〉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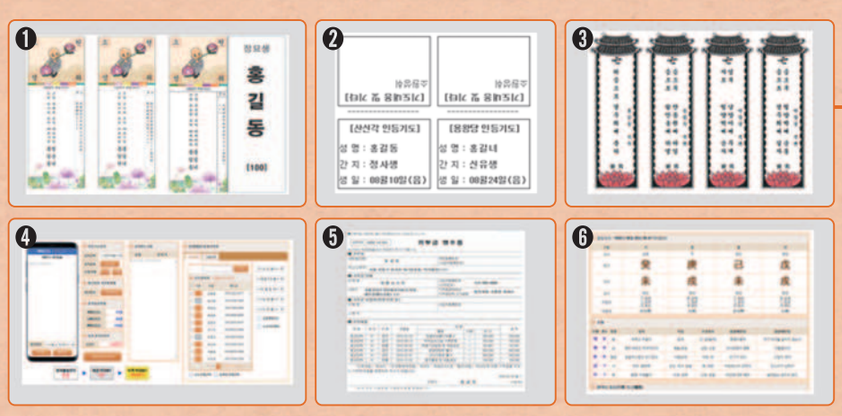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GM since 2015 GMSOFT 사찰신도 관리 프로그램

동종업계 최저가격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기본 19,800원 | 설치비 · 세팅비 전액무료



프로그램 주요 기능
❶ 연등표 출력
❷ 인등표 출력
❸ 위패출력
❹ 문자발송
❺ 기부금 영수증
❻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지엠소프트 [지엠소프트]를 검색하세요

대표전화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평일 09: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gmst.co.kr

무의도인이 부처님의 어머니

〈無依道人〉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㉔ 정견(正見)

누가 물었다.

"어떤 것이 참되고 올바른 견해입니까?"

임제가 말했다.

"그대는 다만 언제 어디서나 범부의 경지에도 들어가고 성인의 경지에도 들어가며, 오염된 데도 들어가며 청정한 데에도 들어가며, 모든 부처님 국토에도 들어가며, 미륵의 누각에도 들어가며, 비로자나의 법계에도 들어가서 어디서나 모두 그 국토를 나타내며, 이루어지고 머물고 부수어져 없어지기도 하느니라.

부처님이 세상에 나와서 큰 법륜을 굴리고 열반에 드셨지만, 가고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없으며, 그 태어나고 죽는 것을 찾아도 마침내 찾을 수가 없다. 문득 태어남이 없는 법계에 들어가 곳곳에서 국토를 다니다가 화장세계에 들어가서 모든 법이 공한 모습이어서 다 실다운 법이 없는 것을 죄다 보느니라. 오직 법을 듣고 있는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는 도인이 바로 부처님을 낳는 어머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는 의지함이 없는 데서 나오는 것이니라. 만약에 의지함이 없는 것을 깨달으면 부처도 또한 얻을 수 없다. 만약 이와 같이 보기만 하면 이것이 바로 참되고 올바른 견해라 할 수 있는 것이니라."

'참되고 올바른 견해'가 무엇이냐, 정견(正見)을 묻는 질문이 다시 나왔다. 정견이란 팔정도에 처음 나오는 불교 기본 교리 용어에도 있는 말이지만 선에서 말하는 정견은 실참(實參)을 통해 얻어진 정안(正眼)으로 보는 견해다. 정법안장(正法眼藏)이라 하기도 한다. 임제는 정견의 물음에 '의지함이 없는 도인'을 들어 답한다. 이른바 무의도인(無依道人)은 임제가 내세우는 무위진인(無位眞人)의 또 다른 이름이다. 주체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모든 존재의 근원이요 본질 그 자체로서 어디에나 통할 수 있는 초월적인 것이다. 이것이 시공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일체 물리적 현상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생사(生死)에도 자유롭고 열반(涅槃)에도 자유로운 것이다. 한정 지을 수 없고 특정 지을 수가 없다. 이것을 아는 것이 참되고 올바른 견해라고 답해 준다.

정견을 강조하는 선(禪)에서는 지식으로 아는 것을 금기시킨다. 다시 말해 지해(知解)속에 정견이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종취(宗趣)를 터득해야 정견이 될 수 있다. 흔히 종통(宗通)이라 하는데 사량분별로 이해하는 차원이 아닌 직관적인 통찰이 단도직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해를 부정하는 말을 자주 한다. "이 문으로 들어오면 지해를 두지 말라.(入此門來 莫存知解)"고 하였다. 또 황룡사심(黃龍死心)은 "안다는 한 글자(知)가 온갖 화를 불러오는 문(知之一字 衆禍之門)"이라 하였다. 선을 방해하는 모든 화근이 알음아리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다만 이 장의 임제의 법문에는 〈화엄경〉 용어가 나온다. 미륵누각이나 비로자나법계 그리고 화장세계가 〈화엄경〉 용어다. 법신 비로자나는 깨달음 자체를 의인화하여 나타낸 말이다. 선의 견성(見性)이 비로자나 법신을 보는 것이다.

'의지함이 없다(無依)'는 것은 마음에 어떤 관념도 만들어지지 않는 무념(無念)의 경지이다. 마치 '부처를 부처라 하면 부처가 아니다'는 말처럼 어떤 대상을 의식하면 그것에 의지하는 마음이 되어 머무는 바가 되어버린다. 머무는 마음이 되면 자동적으로 집착이 생기게 된다. 불교 수행에서 집착을 끊으라는 말이 각종 경론이나 어록에 무수히 나온다. 임제는 수행을 할 때도 수행에 집착하면 안 된다고 하였다. 도(道)를 닦는다는 생각을 하면 도는 닦아지지 않고 번뇌만 다투어 일어난다 하였다.(若人修道道不行 萬般邪境競頭生)

'의지함이 없는 것(無依)'을 깨달으면 부처도 얻을 것이 없다 하였다. 이는 무소득의 경지를 말한 것으로 부처가 되면 부처가 없다는 말로 매우 역설적이면서도 묘한 뉘앙스를 풍기는 말이다. 이것이 바른 견해라 하였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부처님 생각뿐이면 성불할 수 있어



세상 속 경전읽기

㉔ 사종염불(四種念佛)

청화 스님의 법어집인 〈정통선(正統禪)의 향훈(香薰)〉 '제2편 법문의 말씀 3. 실상염불 · 참선 · 삼매'에서, 염불을 1)칭명염불[稱名念佛. 부처님의 명호(名號:이름)를 외우는 염불], 2)관상염불[觀像念佛, 부처님의 원만한 덕상(德像)을 관찰하면서 하는 염불], 3)관상염불[觀想念佛. 부처님의 무량공덕을 상념(想念)하면서 하는 염불], 4)실상염불[實相念佛. 실상 곧 진리를 관조(觀照)하는 염불. 붓다의 법신이 비유비공(非有非空)한 중도실상(中道實相)의 묘심(妙心)임을 관조하는 염불]의 4종염불로 구분하고 있다.

명호부사의(名號不思議)라는 말이 있다. 부처님 명호는 보통 이름이 아니라 무량공덕을 갖춘 부사의한 이름이라는 것이다. 곧 말로 나타낼 수도 없고 마음으로 헤아릴 수도 없이 신비하고 놀라운 힘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부처님 명호를 꾸준히 외울 일이다.

우리가 붓다의 명호를 자꾸 외워서, 곧 칭명염불을 해서, 부처님 생각뿐이면 성불하게 된다. 여기에는 이중(二重)으로 안전장치가 있다. 첫째 우리가 본래 불성(佛性)을 갖추었으므로, 무명(無明)의 구름을 걷고, 불성의 태양을 드러내면 붓다이다. 칭명염불을 통해 오직 부처님 생각뿐이라면 이미 무명의 구름은 걷힌 것이니 곧 붓다이다. 둘째는 아미타불 48원 중 18원[십념왕생원(十念往生願)의 가피(加被)를 받는다.

세자재왕(世自在王) 부처님 당시 왕이었다가 스님이 된 법장비구(法藏比丘)가, 부처님 전(前)에서 48대원(大願)을 세우고 오랫동안 수행하여 아미타불이 되었다. 그 48원 중 18원은 다음과 같다.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저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신심과 환희심을 내어 제 이름(아미타불)을 다만 열 번만 불러도 제 나라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設我得佛°十方衆生至心信樂°欲生我國 乃至十念°若不生者不取正覺°]

〈佛說無量壽經 T0360_.12.0268a26-a27〉

아미타 나라 곧 극락은 지극한 낙토(樂土)일 뿐 아니라, 바람소리도 물소리도 새소리도 모두 그 국토에 태어난 이들을 필연적으로 성불에 이르게 하는 방편이다.

4종염불에서 알 수 있듯이, 염불에는 부처님 이름[佛名]을 외우는 칭명염불, 부처님의 모습[佛身]을 생각하면서 하는 관상(觀像)염불, 부처님의 무량공덕[佛德]을 생각하면서 하는 관상(觀想)염불, 실상[진리] 곧 법신(法身)을 관조하는 실상염불이 있다. 붓다를 염(念)하는 것이 염불인데 그 대상이 부처님의 이름, 모습, 공덕, 진리의 4종인 것이다. 여기에서 실상염불은 진리 곧 본래면목을 관조하는 것이니, 염불선(念佛禪)이다.

염불은 곧 염각(念覺)이니, 염불하는 것은 현전일념(現前一念)이 본각진성(本覺眞性)을 각오(覺悟)하는 것이어서,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닌 것[與佛不二]을 확인하는 공부이고, 부처를 떠나지 않는[與佛不離] 공부이다.

화엄 제5조 종밀의 〈화엄경행원품소초〉 제4권에 4종염불에 대한 언급이 있다.

"그러나 염불은 같지 않아 4종이 있다. 1)칭명념(稱名念), 2)관상념(觀像念), 3)관상념(觀想念), 4)실상념(實相念)이다."[然念佛不同總有四種一稱名念二觀像念三觀想念四實相念]

〈華嚴經行願品疏鈔 第四卷 X05n0229_0280a04〉

여기에서의 칭명념은 4조 도신 대사의 일행삼매를 예로 들었고, 관상념(觀像念)은 〈대보적경〉의 예를 들어 '여래의 소상(塑像)이나 그림을 관하는 것[觀如來塑畫等像如大寶積經]'이고, 관상념(觀想念)은 '여래의 32상(相) 가운데 하나를 관' 하거나, 〈좌선삼매경〉의 예를 들어 '부처님의 전신이 허공에 처(處)한 것을 관하는 것[佛身處在虛空]'이고, 실상념(實相念)은 〈문수반야경〉의 예를 들어 '생멸래거명상(生滅來去名相)이 없는 것을 부처라 하고, 스스로 몸의 실상을 관하듯이 부처를 관하는 것'이라 하였다.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⑳ 닦음의 길 10

보시, 자선인가 수행인가?

아주 오랜 시간 남모르게 나눔을 실천해온 불자가 있었다. 언젠가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된 어느 기자가 이를 신문에 크게 보도하였다. 기사를 접한 사람들은 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에 많은 감동을 했는데, 뜻밖의 상황이 일어났다. 그분이 크게 화를 내면서 한번만 더 사람들에게 알리면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이와 같은 미담을 널리 알리는 것은 기부 문화의 확대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권장할만한 일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분은 오히려 크게 화를 내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6바라밀 가운데 첫 번째 실천 덕목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보시(布施)다. 나눔이 맨 앞에 놓인 것이다. 개인의 깨달음보다 이타행, 즉 사회적 실천을 중시하는 대승불교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보시에는 세 종류가 있다. 첫째로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이나 물건을 나누는 재시(財施)가 있고 둘째로 붓다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는 법시(法施)가 있다. 그리고 돈이나 지식이 없이도 보시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 번째인 무외시(無畏施)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예컨대 따뜻한 말 한 마디나 상대를 기분 좋게 해주는 환한 미소 등이 모두 무외시에 해당된다.

보시는 질적인 차원에서 유주상보시(無住相布施)와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로 구분할 수 있다. 유주상보시는 글자 그대로 상(相),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얼마만큼 보시했다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한마디로 생색을 내면서 보시하는 경우다. 이렇게 하면 복이 모두 세어나간다고 해서 유루복(有漏福)이라고 부른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세지 않는 무루복(無漏福)을 지으려면 상에 머무르지 않는 무주상보시를 실천해야 한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청정한 나눔만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바라밀로서의 보시는 하나를 주면 다른 하나를 얻는 비즈니스가 아니다.

그리고 무주상보시가 되기 위해서는 삼륜청정(三輪淸淨), 즉 세 가지가 청정해야 한다. 보시하는 사람(施者)과 보시하는 물건(施物), 그리고 보시를 받는 사람(受者) 모두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부정한 사람이 도둑질과 같은 나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을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은 무주상보시가 아니라는 뜻이다. 깨침을 향한 청정한 수행으로서의 바라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무주상보시를 실천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누군가 나의 선행을 알아줬으면 하고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열심히 보시했는데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럴 때면 이렇게 말하곤 한다. 알아주면 알아줘서 감사한 일이고, 몰라주면 무주상보시를 잘 실천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고 말이다. 그러니 서운해 하지 말고 바라밀 공부 잘 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격려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중용〉의 지적처럼 "나를 바르게 하면 될 뿐 다른 사람에게서 구할 필요가 없기(正己而不求於人)" 때문이다.

나눔을 실천할 때 정말로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다.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고마운 마음이 들도록 해야지 미안함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간혹 나는 이만큼 보시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그 순간 감사를 느껴야 할 나눔이 오히려 미안함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때론 미안함을 넘어 미움으로 이어질 때도 있다. 좋은 일을 하고도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나눔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다. 보시에도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우가 없었는지 돌아볼 일이다.

앞서 언급한 그분이 왜 화를 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그분에게 보시는 단순한 자선행위나 비즈니스가 아니라 바라밀, 즉 수행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그분의 보시행을 널리 알린 것은 어쩌면 수행을 방해한 것이 아닐까 싶다. 그분께서 보인 화는 보시란 깨침을 향한 바라밀임을 일깨워준 따끔한 경책이었던 것이다. 꼭 기억해야 할 일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탐욕과 성냄 없애는 수행 '위빠사나'

명상書 톺아보기

정준영 교수의

'위빠사나 이야기-있는 그대로'

〈1〉 위빠사나 수행을 소개하며



위빠사나란?

위빠사나 수행이란 지혜를 키워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란 무엇일까요? 지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초기불교에서 설명하는 지혜는 '분명한 앎'과 함께하는 '통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엇이든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분명히 아는 방법이라면 지혜를 키우는 것이며 위빠사나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빠사나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타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의 현상을 살피려고 하면 어느 순간 선입견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보려고 해도 기억이라는 색깔이 입혀진 대상을 보게 되고, 먹으려고 해도 기억이라는 조미료가 첨가된 대상을 먹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일반적인 인식과정입니다.

위빠사나는 이러한 틀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닌 선입견은 기억에 의존하고 고정시키려는 속성이 있어 현재 변화하는 실제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고정된 생각은 변화하는 실제의 모습을 덮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과정에서 괴로움(苦)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생각에 비해 실제의 변화가 너무나 빨라 덮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빠른 속도로 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역시 늙고 병들고 죽는 변화의 과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고정된 생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것은 실제의 모습입니다. 결국 생각은 실제의 모습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만족을 만듭니다. 즉, 괴로운 것입니다.

위빠사나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려는 시도입니다. 가능한 관념과 생각에서 벗어나 실제의 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고정된 생각에 익숙해진 마음은 빠르게 변화하는 실제를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붓다는 여덟 겹의 길(八正道)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서도 집중(定)을 통하여 설명되는 바른 노력(正精進), 바른 주시(正念), 바른 집중(正定)이 바로 개념을 벗어나 실제를 바라보는 지름길이 되어 줍니다.

특히 상좌부불교 안에서는 바른 주시(正念)의 특성을 더욱 부각하여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행과정을 통해 수행자가 끊임없이 노력할 때 그는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지혜를 키워나가는 위빠사나 수행이며, 불만족(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입니다.

이제 고정된 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빠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불만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 해결 방법으로 위빠사나 수행방법을 소개합니다. 크게 위빠사나의 이해, 시작, 진행, 발전이라는 네 개의 과정으로 구분하여 위빠사나의 의미와 수행방법, 그리고 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법을 다룹니다.

첫 번째 장과 두 번째 장을 통해서는 위빠사나의 의미를 밝히고 오늘날 진행되는 다양한 위빠사나 수행법 중 마하시 사야도의 방법을 소개합니다. 본 수행법은 앉고 걷고 서고 눕고 일상에서 알아차리는 다섯 가지의 방법으로 나누었으며, 독자가 실제로 읽고 따라 해 볼 수 있는 설명과 이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장은 두 번째 장을 통해 위빠사나 수행을 시작한 초보 수행자에게 필요한 핵심 기능과 장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수행자는 위빠사나 수행의 진행 과정 안에서 집중의 힘을 키우고 대상과의 동일시를 벗어나기 위해 '이름 붙이기'의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의 발전을 위해 '주시(sati)'와 알아차림(sampajanna)의 힘을 키우게 되며, 더 나아가 행위를 하기 전에 '의도'가 있음을 파악하는 수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본 장을 통해서는 이러한 과정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를 위해 수행자가 지녀야 하는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 불교 지혜를 키워가는 과정
> 통찰 통해 일반인식의 틀 깨
> 실제 바라보는 지름길 역할

네 번째 장은 위빠사나 수행의 본격적인 발전 과정에 대해 다룹니다. 지금까지 설명된 위빠사나 수행법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본 수행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설명합니다. 다만 본장에서 설명하는 주의해야 할 점은 세 번째 장을 통해 소개된 장애들보다 좀 더 섬세하고 심리적인 문제들을 다룹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행자는 수행의 핵심 기능을 더욱 발전시키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여실지견을 통해 불만족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순룬(Sunlun)과 쉐우민(Shwe Oo Min) 위빠사나의 역사와 수행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마하시와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선정을 성취하지 않고 위빠사나만 진행하는 순수 위빠사나 수행으로, 상좌부 전통의 맥락에서 진행하는 현대 수행법입니다. 마하시 위빠사나 수행은 〈청정도론〉을 중심으로 그 발전의 구조를 잡고 있으나, 이들 위빠사나는 상좌부의 전형적인 방식에서 벗어난 또 다른 형태의 위빠사나 수행법입니다. 순룬 위빠사나는 독특한 호흡을 사용하고, 쉐우민 위빠사나는 마음을 강조하는 수행을 진행합니다.

대부분의 명상가들은 감각적 욕망에 기준하여 만족할 만한 경험은 명상의 순기능으로, 괴롭거나 힘든 경험은 명상의 역기능으로 이해합니다.

빛을 보거나 신비한 체험을 하면 초월적 경험을 했다고 해석하고, 통증 없이 수행 시간이 빨리 지나가면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고 해석합니다. 망상이나 환영을 보면 무의식이 반영된 것이기에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도 합니다. 반면에 다리가 저리거나 시간이 안 가고, 망상이 많고, 불안하면 수행이 퇴보했다거나 수행을 망쳤다고 해석합니다. 이들은 모두 탐욕과 성냄을 기반으로 한 잘못된 판단입니다.

위빠사나는 즐거운 경험과 괴로움 경험, 혹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호불호를 결정하는 수행이 아닙니다. 탐욕과 성냄을 없애기 위한 수행입니다. 위빠사나는 희열이 오든지 다리가 쑤시든지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방법입니다.

최근 북미에서 시작된 명상의 열풍과 대중화는 우리나라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위빠사나 수행은 번뇌를 제거하고 열반을 추구하는 수행법에서 심신의 치유를 위한 마음챙김 명상법으로 대중화 되고 있습니다. 명상의 대중화는 저변 확대라는 측면에서 보면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칫 위빠사나가 다양한 명상들 사이에서 본래의 의미를 잃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위빠사나는 심신의 즐거움이나 이완, 그리고 자아 존중감을 위한 명상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성인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인 수행입니다. 위빠사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심리치료적 명상과 불교수행을 구분하고 올바른 선택의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저자 **정준영 교수**는…



초기불교를 전공한 대학교수이자 명상지도자로 스리랑카 국립 켈라니아대에서 위빠사나 수행을 주제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전연구소 상임연구원, 불교학연구회 편집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불교대학원대 불교학과 명상학 전공 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빠사나〉, 〈다른 사람 다른 명상〉 등이 있다.

봉 제290회 행

운흥사 영산대재

2020년 7월 11일(토) 10:00

주최 : 운흥사
주관 : 운흥사, 운흥사신도회, 고성군
후원 : 제13교구 본·말사 연합회 경상남도



자비 실천하는 여성불자회
내가 참여하는 가운데 발전하는 여성불자회

부산여성불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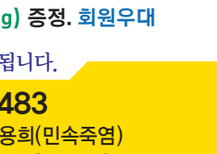
총재 혜총

자문위원 백명숙 김순례
명예회장 왕선자
회 장 류영남
후원회장 정관희
부 원 장 정정자 김정화 서정례
총 무 김선미
재 무 서정례
감 사 이은선 이명희
봉 사(1) 박화자 김명숙
봉 사(2) 조현숙 김말향
홍 보 권정미 김정애
운영위원 진위미 한순점 최연화 김명숙

이사 · 회원 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13 (양정동, 불교회관 4층 402호)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 환인동 요가마을



30년 전통 민속죽염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250g	9,000원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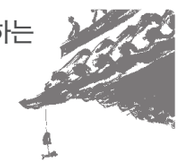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298호 | 15 | 전면광고

항상 새벽처럼 깨어 있어라.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즐겨라. 자기의 마음을 지켜라.
자기를 위험한 곳에서 구출하라.
진흙에 빠진 코끼리가 자신을 끌어내듯.



부처님 말씀 읽기 - 《법구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허리병 고치는 법 발을분 배울분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입종 동참안내

불교문화정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원, 불교선문화원,
불교명상문화원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교육부 산하 상학 인가)
만대 불교학 대학원
010-5412-8040 법광

사찰건축전문

문화재기능962호

대웅전	한옥별장
요사채	재실
누각	산신각

펜션(육송 나무목재만 사용)
원명 010-4300-9104

운명학 단기완성

데이터 기반 명리학과
특별한 비법 단기 강의,
스님께 확신이 됩니다
3개월 단기완성
수업료 : 5백만원
교육시간 : 주2회 (2시간씩)
문의 010-2480-5677
(아는소리 명리학당 총무)
한국불교태고종 지성선원(창원시 성산구)

★검 색★

①네이버
운명자가진단 동영상
②유튜브
손도사 동영상
인간계발과 MBTI연구원
문의 : 010-5150-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010-5270-8260

사찰화재 보험

●목조건축물 OK!!●
전국 최다 사찰 가입
010-7344-1881

아픈 마음을 치료해주는
보승스님의 법문을
가수 이애란이 노래로 불러주는
CD나 USB로 20,000원
(택배비는 본인부담)
농협 351-1134-3833-73
예금주 : 장석근
010-9243-0993

그린그린 및 심리상담치유

한의학전공, 한중역학대학원석사과정, 철학박사학위과정, 심리상담치유자격증 2011-12-82948호 / 사업자등록번호 576-10-00995호 / 통신판매업신고증 제2019-전남보성-00002호

모든일에는 때와 시기가 있는법 / 병원에 다녀도 치유가 안되시는 분 / 불면증 / 스트레스 및 화병 / 우울증 / 조울증 / 노인및 건망증 클리닉 / 여성및 갱년기클리닉 / 소아청소년상담 / 부부상담 / 정신장애 / 두통 / 빙의

* 치매상담후 한달이내 완치 *
010-4866-8055 / 061-852-1003

사 궁 이 택 타
주 합 름 일 로

당신의 고민을 시원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바로전화주세요.
** 전화상담 가능 **
02-927-2683

입종 동참안내

*****
부처님의정원·사암·포교원
선원·불교문화원·종단
단체·연합회
입종 동참바랍니다
한국불교 종무청
010-5412-8040 법광

• • •
팔공산 천년고찰
운전도 하고 주지스님
수발하실 보살님 구함
(50대~60세)
• • •
010-8833-4416

• • •
사찰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중국교포 환영)
숙식필수
(65세 이상, 경기도)
• • •
010-4253-9110

특수한

기도법 전수, 스님에 한합니다.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후공부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명 리 · 육 효 강 좌

(연결카페http://cafe.naver.com/baikamsa 백암역리원)
영가반 ○ 초보에서 실천완성
명리·육효학 ○ 초보반 : 명리·육효 기초가 전혀없는 왕초보
○ 실전반 : 명리·육효 기초 완성자
백암역리원 02)597-1101
오시는 곳 :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수강생 모집(그림)

•수업 :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장소 : 서울 인사동 미술 교육관
(종로오피스텔 4층 401호)
•매주 수·목요일 주 2일 [월 8일]
•수강료 : 월10만원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청곡 이한동 화백
010-3747-8692

• •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양산 통도사 극락암 호국선원
선원대중스님 후원봉사하실
신도님 기다립니다.
• • •
010-3928-7083
055-382-7083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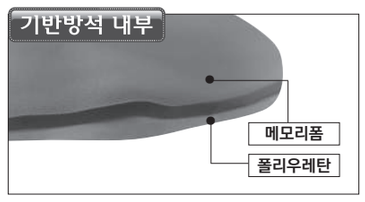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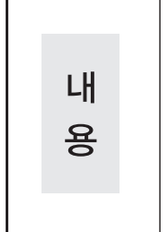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298호 | 16 | 전면광고

술 먹고 남의 방에 들어가거나 도박과
광대놀이 좋아하면서 나쁜 벗 사귀고
게으른 이는 훌륭한 사람에게 칭찬 못 받네.



부처님 말씀 읽기 - 《선생자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시
◎ 부지 : 500평
◎ 건물3동
◎ 북한산차량진입
◎ 매가 : 8억1천5백

◎ 위치 : 경기
◎ 부지 : 210평
◎ 건물 : 대웅전,요사
◎ 신도시중심
◎ 매가 : 7억5천만원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채권 채무상담 받습니다.**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사찰순례,채권상담,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 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 전망 좋은 사찰
- 대지 : 35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2동(1동은 세집 월세받음)
- 많은 주차, 남향집, 도시가스
- 가액 : 11억 5천만원

010-3269-1023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대단지 아파트 뒤 산속. 차량 진입 불가
- 3만평 중 5천평 지분 등기가능
- 가액 : 4억 6천(조정 가능)
- 무허가 건물 ● 종무소.삼성각. 용왕전. 다실. 창고 각각 한동
- 1층 화장실(해우소)/2층 공양간 /3층 법당(큰법당)

011-9394-8511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 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지하철 역세권 대도로접3층
- 약 50평, 도시가스, 옥상사용, 주변주차시설양호
- 보증금 500만, 월 45만
- 시설비 1300

010-7337-5956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소재
- 대지 : 350평
- 건물 : 약 80평 (법당, 요사채)
- 가액 : 답사후 결정

010-7584-8338
010-5718-007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2억 5천(가격절충가능)

010-5421-1536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근교
- 법당 : 50평 ● 요사 : 65평
- 대지 : 5백평 ● 임야 : 4천평
- 가액 : 11억

010-4547-499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 2층 천수천안사, 30평
- 보증금 1천만원
- 월 60만원
- 시설금 3천만원
- 시설완비

010-8567-3667

좋 은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도심
- 대지 200평, 법당 50평, 요사채 100평, 별채 50평
- 가액 : 25억 (대출가능)
- 별채빼고 양도가능
- 신도다수 ●건강문제로 양도코저 함

02-992-0032

좋은사찰안내

- 위치: 경남 통영시 중심지 큰도로변
- 대지: 약60평
- 건평: 1층법당21평,공양간, 방 약10평,2층요사채15평, 건물앞주차5대,도량에3층 석탑,석등
- 가액: 3억2천

010-8669-5665

사찰·기도(터) 안내

- 위치 : 김해 선안다리 5분거리
- 물건 : 260여평, 법당, 요사, 종각
- 주변이천세대, 시세 평당 350만
- 가액 : 7억5천만원(은) 2억3천 포함

- 부산 장림역1km 토지 5천여평
- 신촌초 옆 주거지 1천여평 포함
- 가액 : 7억5천(은)3억3천 포함

010-9906-3631

사 찰 안 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5억5천(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010-3128-23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남성역 5분거리
- 관악산, 까치산 청정도량
- 재래시장 인근, 이동인구 많음 4층건물 중 2층 3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120만원
- 시설 권리금 없음

010-3657-959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 북구 호계동 유황사우나 부근3층
- 약 50평, 방3개, 옥상사용
- 보증금 1천만원
- 월 80만원
- 시설금 약간

010-2074-68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백병길 171) 대웅사
- 토지 : 5,830평(종교용지 1,700평, 산168-2번지 4,130평)
- 건물 : 대웅전1동, 요사채(1,2층)1동, 기도방1동(납골당용)
- 특징 : 백병산 중턱의 남한강을 바라보는 전망좋은 기도사찰
- 입주조건 : 매수 또는 매수조건부 장기임대(매수대금 분할상환가능)
- 가액 : 현장답사 후 협의결정.

010-4225-0012

포교당(급)안내

- 위치:경북 포항시 오천
- 2층(60평)전체
- 삼존불, 탱화, 소불
- 완전 현대식 수리
- 몸만오시면 법회가능
- 가액 : 1억 2천만원

010-2857- 2811

사찰(급) 안내

- 위치 : 서울시 정릉, 국민대학 건너편
- 171번지 버스종점 옆
- 스님의 50년된 암자
- 약10평정도 텃밭 있음
- 성북구청에서 무허가 대장이 등록된 집이라 명의 이전됩니다.
- 스님이 호주 이민관계로 양도함
- 매매 5천만원, 권리금 2천만원

010-5399-1225

인천사찰안내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만수소방소 건너편) ● 평수 : 단독건물, 지하1층, 지상3층, 건평 110여평 ● 건물 : 지하1층 : 창고형, 1층 : 공양간(방3개, 화장실), 2층 : 방3, 화장실, 3층 : 법당, 3존불, 지장불상, 칠성, 산신 ● 가액 : 3억3천5백(사정상 급양도함, 사찰연력 : 40여년) ● 답사하실분만 사전전화 요망

010-8360-825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 위치 : 최신식 임법당. 경남. 아주 위치좋음. 선전최고위치 궁궐 꽃도량. 신도많음. 스님. 무속인 환영. 최고 위치좋음.
- 건평 52평. 대지 200평 정도.
- 앉아만 있어도 돈 들어오는 최고 요지.
- 가액 삼억 팔천 절충 가능.

010- 4137- 1328

5층코너 상가주택 포교원 안내

-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내 최고요지, 아파트 앞
- 평수 : 대지 80평, 건평 약230평, 대리석건물, 점포6칸임, 지하1층부터 3층까지 상가임
- 4층 : 주인세대 47평, 방4칸, 화장실2, 넓은거실, 모두 수리완료
  3층 포교원 : 47평 최신설비 불단조성, 종무소 스님방, 남녀화장실, 주방, 세면장, 도시가스 단, 부처님, 탱화, 기타 법기물 일체는 매매에서 제외함
- 참고사항 : 포교원 경영하면서 상가수입 득함, 주차장있음, 도시가스, 일조권, 조망권 최고, 생활편리 주변 문화시설 대형마트
- 급매가격 : 7억 5천만원(스님 노환관계로) 금융융자 : 3억 5천만원, 상가보증금 4천만원

010-9011-7230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 청통 부근
- 산을끼고 아주 조용한 사찰, 단청, 주련 현판
- 총평수465평, 현대식건물2동
- 1층 요사 30평, 14평 ●2층 30평 법당
- 주차장 확보
- 가액 : 3억 9천만원

010-5804-5100

부산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구 충무동 골목시장
- 시설완벽, 법당43평, 요사체43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66만원
- 시설비 2천만원
- 6년간 운영한 곳

010-2618-7676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 대지 : 123평, 건평 : 60평
- 법당외, 삼성각, 용왕, 호신불당, 마당6층 옥탑, 차고, 자연수(사철)
- 상수도, 뒤는산, 전면 좌우 주택지
- 가액 : 3억 5천

010-2720-158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회원구 내서읍 (내서IC 3분거리)
- 대지 100평. 법당 25평
- 요사채. 스님친견실. 산신각 대형주차장
- 가액 : 3억1천만원(절충가능)

010-5550-9725
010-4001-8476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M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M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M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M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M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M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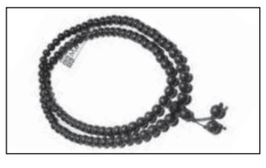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0mm) 판매가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행 스님

자기의 모든것을 조절할수있는 자유권을 자기가 가지고있다

여러분 앞에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일거삼득으로서, 예전에 무(無)의 법, 유(有)의 법 이것을 따로따로 배우면서 나중에 무루와 유루를 한데 합쳐서 법화경으로 설했던 부처님의 그 뜻을 가만히 여러분이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유의 법과 마음의 무의 법 그걸 합쳐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는 생활이 어떠한 것인가? 그 생활 자체가 바로 법화경이라, 응? 그러니 이거를 공간을 두고, 이게 마디는 있으나 속에 통하는 것은, 각각 이게 막아져 있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통해져 있으면서 거죽으로 이름만 마디가 세 매듭이 있는 거나 똑같은 거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심에 들게 한다면" 하는 요것이 마디만 있다 뿐이지 한데 통해서 한 일 자로 본다면 그냥 일심이야, 일심. 모든 것이, 삼계의 뜻이 일심에 들었다 이 소리야.

거북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어저께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나는 여러분에게 10년 20년 30년이 가깝도록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생활면이나 몸을 끌고 다니는 건강면이나 또는 가정 문제라든가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이 활용을 하고 다니는데 그것은 첫째, 참선이 될 것이며 자기를 찾을 것이며 둘째, 그대로 활용이 그대로 여여함이라는 거, 그러면 그대로 공덕이 된다는 거. 이것이 철저하게 그대로 참선이요, 그대로 우리 생활이 여여함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답답하니까 말 자체, 악센트가 곱게 나가지 않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저께 얘기한 것은 이 꼭지가, 이게 문이라고 해요, 사람마다. 항상 이런 말을 하지만, 우리가 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안에도 꼭지가 있고 바깥에도 꼭지가 있는데 이건 한데 통했어, 막히질 않고. 이것이 막히질 않았기 때문에 바깥에서 열어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안에서 열어도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된다면 열고 나갈 수도 없어, 막혀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관문을 열어도 그렇고 방문을 열어도 그렇고 양면이 다 통해 있어서 연다. 그래서 안에서 바깥으로 굴리는 거는 안에서 그걸 열어야만 되는 거고, 바깥에서 찰나찰나 보이는 것을, '버릴 거는 버린다' 이러는 것이 뭐냐 하면 찰나찰나 보이는 것에서 내가 쓸 만한 거를 건져서, 예를 들어서 흘려 버릴 건 흘려 버리고 '이건 이렇게 옳다' 할 때는 벌써 여기 문을 누르는 거나 마찬가지야. 안으로 놓는 거야, 이게. 이게 잠재해 있는 내 원자력 발전소에다가 바로 굴리는 법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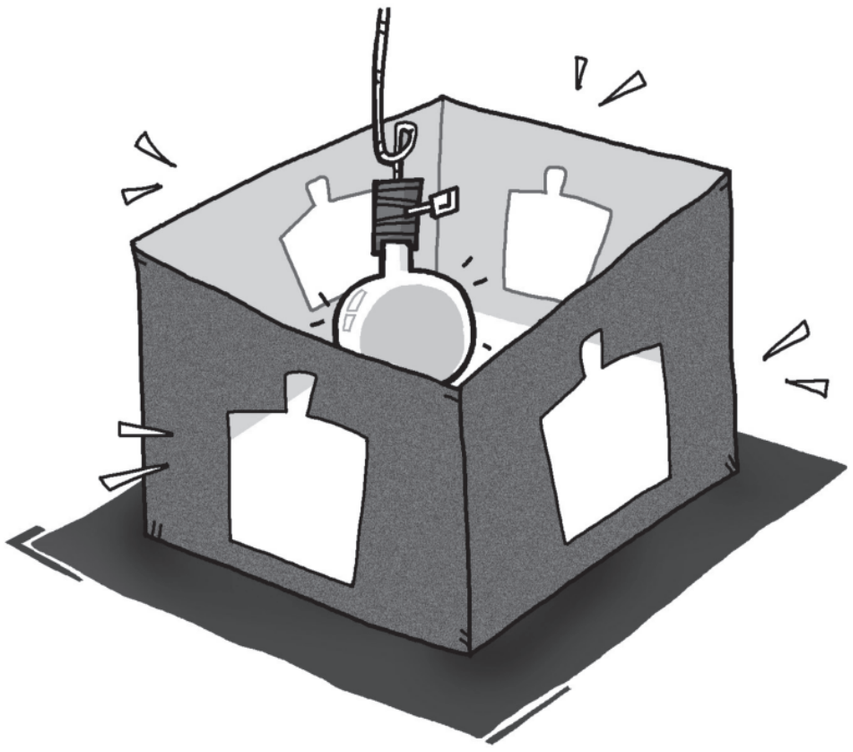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러면 물도 우리가 약물이다 한다면 맹물과 어떠한 물건과, 만약에 삼과 대추를 가공해서 졸인다면 이건 삼물이 돼 버려, 응?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 물도 곱게 물대로만 있는 게 아니야. 만약에 여기서 가공만 한다면 이것이 삼물이 될 수도 있고 가공을 안 하면 그냥 맹물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 맹물을, 즉 에너지가 있게끔 에너지로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라.

이것은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합해서 내가 활용하는 데에 의의가 있는 거지. 그렇게 활용하면서도 자기가 침착하게 지켜보는, 자기가 해 놓고 자기를 침착하게 보는 그러한 물러서지 않는 믿음, 그거를 갖는다면 우리는 참 빠르게 공부할 수 있다. 빠르게 나를 발견할 수 있고, 발견함으로써 직접 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애가 태어나면 자라야 하지마는 이것은 발 하나 떼어 놓으면서 벌써 내가 이 포착을 했으니까 아주 용이 됐으면 물 얻기가 십중팔구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말했듯이, 지능이 발달이 되면 결국은 지능으로 인해서 물리가 터지고, 물리로 인해서 지혜로운 그 일체 만법을 그냥 활용할 수 있다. 이 지혜로운 것은 내 폭이 넓고 그 마음의 지혜가 무기가 돼서 그대로 씀씀이를 쓰는 것이니 찰나찰나 닥치는 거를 마다 않고, 가는 거 잡지 않고 이러면서 내가 유유히 써 나가는 거, 그대로. 그런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여여함이라고 그러고 걸림이 없다고 그러고, 자유인이라고 그러고 부처라 그러고 보살이라고 그러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역대 조사의 그 마음도 역대 부처의, 사대 성인들의 마음도 모든 것이 그 차원에 따라서 차원이 낮고 높고 이것뿐이지 생명은 다 똑같은 거라. 생명은 다 똑같은데 이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차원이 낮은 거라. 낮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하는 거지. 생명은 누구나가 다 똑같은 거지.

그래서 불성이 하다못해 개에게도 있다 하는 거는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얘기지.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품으로 인해서 육신이 움죽거리고 말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것을 요렇게 놓고서 우리가 이 안팎이 없는 보당이 여기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보당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바깥에서 오관을 통해서 들어온 것을 여기서 안으로 굴리고, 안에서 바깥으로 내놓을 때는 안의 보당이 눌러지는 거야, 자동적으로, 그건.

그렇게 된다면 이 줄이 벌써 인간의 몸에도 척추에 있는 이쪽으로나 심장 이쪽, 오장육부 이쪽으로는 이 세포가 둥글게, 즉 말하자면 고구마같이 그렇게 된다고나 할까? 그러한 모형으로다가 이것이 법망이 쳐져 있지마는 그런 게 아니라면 딴 데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어떠한 그것을 막지 못해요. 그것이 법망이라, 우리한테도.

그러면 다른 세포에 있는 건 엑스로써 삼각형을 이루면서 이것이 세포가 나간 거거든. 그것은 왜 그런가? 모든 면에 있어서 영계라든가 또는 무위에서 안 보이는 문제들, 유전성이나 또는 인과응보라는 거나 이러한 모든 문제를,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세포라. 여기는 울타리나 똑같아. 그런데 울타리는 그냥 부수면 부서질 텐데 울타리 아닌 울타리라. 즉 말하자면 무의 통신기를 여기에다가 다 접근시켜 놓고 전자력도 여기에 다 있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마는 다 막고 있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이 공중에 수많은 생명들이, 보이지 않는 생명들이 많아도 그걸 제재하고 나가는 거라. 그런데 우리가 이 도리를 모른다면 딴 데서 어떠한 영계가 들어오든 딴 데서 깨친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한번 때려도 그걸 막지를 못하는 거야. 주인이 없기 때문이라. 빈집이 돼서.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해도 도대체 이거는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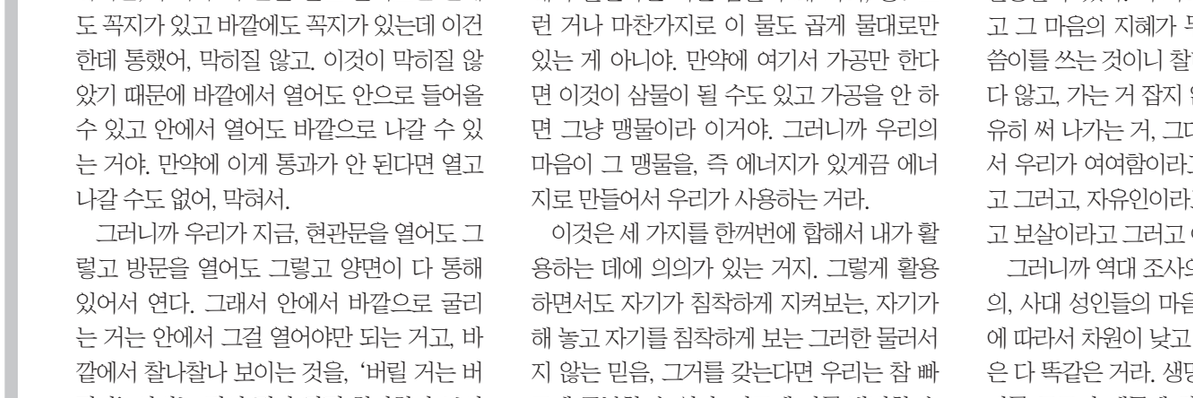
이것은 본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지 누가 새삼스럽게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안팎이 뚫린 이 빗장은 양면이 다 빗장이 있는 거야, 고리가 있듯이. 그런데 맞뚫렸어, 이게. 그런데 이게 둘이 아닌데 우리가 안에서 열려니 이쪽에도 있어야 하고, 바깥에서 열려니 이쪽에도 있어야 하겠기 때문에 이거는 한쪽은 색이요, 한쪽은 무루의 나, 내놓을 게 없는 '참나'라.

그렇다면 '참나'로부터 '가나[假我]'로다가 이렇게 가르치려고 내보내고 또 '가나'가 안으로 '참나'에게 들이고 하는 것을 항상 반복한다면 거기에서 진짜 나오는 거라. 그래서 무루에서 유루를 가르치고 유루에서 무루를, 즉 말하자면 섬기면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는 말이 있듯이 섬기면서 거기서 스승으로 삼고 배우는 거라, 응? 왜 스승으로 삼아야 하느냐 하면 자기의 안에 있는 참자기는 수없는 억겁을 통해서 자기를 이끌어 왔다 이거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참자기이기 때문에 수많은 참자기와는 항상 한자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이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줄이, 내가 어저께 얘기했듯이 요것을 자세히 파악해야 하는데, 이건 내가 자세히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벽을 치면 봇장이 울려야 해. 여기에는 수많은 법 줄이, 이 무전통신 줄이 이렇게 있다 이거야. 무전통신 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전자력과

☞ 18면으로 계속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가정집

A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Q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 서울·경기 02-456-8831 · 충 청 도 010-6545-3350 · 전 라 도 011-248-6298
· 강 원 도 019-396-1110 · 경 상 도 010-4187-006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부처님의 마음을 빚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 인 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

죽는 놈이 글쎄,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러겠습니까!

☞ 17면에서 계속

무전통신 줄과 천안 줄과 천이 줄과 타심 줄 또는 숙명 줄, 신족 줄 이것이 천판 동시에, 동시에 이렇게 있다 이거야. 뭐를 하나 하려도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해서 내가 이게 가망이 있다 할 때 책정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하거든. 여러분 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시에 눈 나가는 데 귀도 나가고 귀 나가는 데 생각도 나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오관을 통해서 이 한 모습에 전자력이나 통신력이나 이런 것이 여기에, 또 영사기나 이런 것이 여기 포함해서 한 팀, 팀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책정기다, '내가 정한다' 이러는 거는, 즉 말하자면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누진으로 이렇게 연결됐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관을 굴릴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다섯, 다섯, 다섯 이렇게 있지마는 책정기에서 부리는, 다섯 개에 종합된 줄은, 왜, 요새 전깃줄 속에 여러 가지 넣고 이렇게 한데 합치지? 그거와 똑같아, 응?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만이 이게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면 이 많은, 다섯 개씩 줄을 넣은 것도 있고 일곱 개씩 줄을 넣은 것도 있고 이러는데 여기에서 보당이 다 거기에 통하게 돼 있는 거야, 이게, 동시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만약에 저 달나라로 통신을 했다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일도 없는데 괜히 통신을 하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무뜩 어떠한 생각이 났을 때 그건 상대가 되는 거야. 그럴 때에 이것은 '아하, 거기?' 하면 이 다섯 개의 줄, 하나의 줄 속에 다섯 개씩 여섯 개씩 일곱 개씩, 이 줄이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 거라, 응? 포함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그 달을 위에서 동시에 보는 거야. 동시에 듣고 동시에 알고, 동시에 보고 동시에 책정을 하고, 거기가 전자에는 어떻고 지금은 어떻고 이런 것을 동시에 보는 거. 다섯 가지 문제를, 동시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살아나가는 생활 속에서 항상 안으로 들이고 내고 하는, 안팎에 있는 이 보당만 가지고 씀씀이를 써 본다면, 자기가 하고 지켜보고 그렇게 씀씀이를 쓴다면 이게 유년 가다 보면 이게 참선이요, 나 찾는 길이요, 나를 발견하는 아주 쉬운 길이요, 또 그 대신에 내가 몸을 이끌어 가는 데도 아, 세 치만 알아도 내 몸은 건강하게 끌고 갈 수 있는데, 이거 건강하게 못 끌고 가?

그래서 나를 갖다가 '아이 참, 귀찮다. 좀 편안하게 조용히 있어야겠다.'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몸이 어르르르르 하면서 아주 딱 그냥 노그라지는 그런 편안한…, 왜, 마취하지? 그러면 편안하게 그냥 있듯이 좀 저거 하면 그렇게도 편안히 좀 있다가 또 저거 하면 '아, 나 일어나야지.' 그러면 그대로 생기가 날 수 있고 이렇게 자유자재할 수 있게끔도 되는 것이 바로 여기의 문제다 이거야. 그 문제도 되지마는 자기의 모든 것이 일어나고 가라앉고 하는 거를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자유권을 가진 거야, 이게, 응?

여러분이 자식들을 기르고 남편을 섬기고 또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스님네들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이 도리를 모르면 항상 배가 고프고 항상, 허허,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못 쓰기 때문에 배가 고픈 거지. 그러니까 항상 배가 고프고 항상 거리로 다니게 되고. 뭐, 집에 들어가 자질 못해서 거리로 다닌다는 게 아니야. 집이 있어도 그건 거리 노중에서 돌아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야. 내 집이 없고 내 주인이 없고 그렇게 해 가지고는 만날 얻으러 다니지 않으면 안 되고, 노예 문서를 항상 짊어지지 않으면 안 돼. 노예 문서를 태워 버려야 되지.

그리고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만이 그것은 중이라고 해. 중!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은 그 심월, 심월봉에서 불이 그냥 번쩍 나면, 그냥 번개같이 번쩍 나면 모든 것이 거기에 따라서 붙는 대로 타 버리는 거라. "붙는 대로 타 버리니 무엇이 붙을 게 있고 뗄 게 있으랴! 그러면서도 여여함이 있으니 어찌 좋지 않으랴!" 이런 거라.

여러분이 "왜 그러면 스님은 깨달아지게끔 빨리 말씀을 해 주시지 그러느냐?" 그러지마는, 하하,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자기가 밥을 먹어 보고, 한 숟가락 먹어 보고 두 숟가락 먹어 보고 세 숟가락 먹어 보고, 이것도 먹어 보고 저것도 먹어 보고 그럴 때에 맛이 다 달라. 어떻게 한 가지 맛만 보고서 그것을 다 알았다고 볼 수 있겠느냐 이거야, 수천 수만 가지인데.

그러면 한 가지 먹어 보고 '아, 이건 쓰더라.' 쓴 것도 그놈이 하는 거고 단 것도 그놈이 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땐가 세 가지가 포함해서 그냥 몰락 그게 되는 거지. 된다 할지라도 알았다는 그 생각의 자존심과 또는 아만, 아상, 욕심, 착 이런 거를 다 떼고 겸손하게, 생활을 하면서 자기는 언제나 겸손하게 하면서 번연히 떡그릇인 줄 알면서도 엎드러져 봐라 이거야. 그럼 거기서 진의가 나온다 이거야. 내가 높다고만 세워 놓으면 아무리 배우려도 높게 있기 때문에 얕은 데를 뛰어들어 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성스러운 석가모니 부처가 계신다 해도 난 어쩐지 말이야, 바람과 같이 스쳐 가는 그 한때, 바람과 같이 스쳐 도는데, 훌떡 스쳐 돌면 또 딴 것이 되고 훌쩍 스쳐 돌면 딴 게 되고 하는데 뭐를 부처라고 세우고 뭐를 눈 밝은 사자라고 치고 또 눈먼 개라고 치느냐 이거야. 도대체 나는 그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눈먼 개는 개고, 눈 밝은 사자는 사자야.

그런데 나는 때에 따라서 어느 누구든지 예를 들어서 "육조를 쳐라, 신수 치듯이." 그러면 그것은 서로 간에 말동무라도 좀, 이쪽에도 그렇고 이쪽에도 그렇고 이렇게 이렇게 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이치가 있다고. 없는 건 아니야. 곧바로 탁 해 버리면 말이 없어지거든. 안 그래? 그럼 서로 놀기 위해서도 그것을 비스듬하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그런다고. 그것도 재밌는 거라고. 또 그렇게 해 놓고는 빙긋이 웃고…. 그럭하다 보면 이 봉오라지에다 딱, 그냥 그쪽에다 탁 해 버리면 그때에 가서야 '아이고, 참!' 하고서 그때는 인제 없어지는 거지.

하지만 사람사람이 그것부터 알아야 돼. 눈 뜬 사자라 할지라도 눈 뜬 사자 노릇을 해서는 안 돼. 왜? 눈 뜬 사자라도 허점이 있을 때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허점을 노리는 그 왜, 쪼끔 저거 해 가지고 괜히 몽둥이나 들고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도 있거든. 그렇다고 몽둥이 맞을까 봐 그러는 건 아니야. 그런 걸 다…. 예를 들어서 본래에 이 달은, 본래 달은 있되 달은 없는 거야. 본래 없는 달인데 어떻게 몽둥이가 거기 있겠어? 붙을 게 뭐 있겠어? 본래 없기 때문에 그 또한 본래 없는 거다 이거야.

그러니 우리 자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참선이라는 거, 즉 행선이라는 거, 이름 붙이기에 달린 거지 그게 다 이름이라고. 여러분도 내가 말하는 거를 천차만별로 아마 받아들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할 테죠. 그런데 그것이 깨달았든 깨닫지 않았든 요렇게 빠르게 해서 이것을 이렇게 활용해 가면서 참선이고, 자기를 발견하는 데에 요렇게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더디다는 거라, 응?

이것도 더딘데 야, 줄줄이 줄줄이 이 바깥에 있는 세포의 모든 것까지 다 배우려면 일생을 통해도 다 못 배워. 이 바깥에 있는 학의 문제라든가 경전이라든가 이런 거 모든 걸 배우려면, 여기 걸 다 배우고 나서 보면 벌써 이 몸은 없어져 버려, 응? 그래서 나는 죽어서 천당에 가려고 이거 하지 않아. 난 내가 지금 알고 지금 하기 위해서지 내일 생각 안 해. 난 본래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이걸 제껴 놓고 봐도 제껴 놓을 게 없고, 바로 봐도 바로 놓은 게 없어. 야, 어떻게 보면 거꾸로 섰고 어떻게 보면 바로 섰고, 그러니까 바로 선 것도 없고 거꾸로 선 것도 없어. 그러니 우리가 무루의, 무(無)의 법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지. 어저께 저녁에도 미국에서 "스님, 이 머리가 이렇게 정상이 아닌데 이걸 좀 돌봐 주세요." 하고 전화가 왔지만, 만약에 인간으로서의 사랑, 의리와 그 참다운 둘이 아님을 내가 몰랐다면 어찌 그런 사랑과 의리가 있으며 내 몸과 같이, 내 아픔과 같이 생각이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내가 어떠한 병이라면 의사가 돼 주고 가난하다면 관세음이 돼 주고 어떠한 판결의 문제가 있다면 판사가 돼 주고 이럴 수 있었을까?

그러니 "당신은 밀이면 밀, 보리면 보리라 이렇게 가려서 말을 해라." 할 때 나는 "한 찰나에 찰나 고개에서 보리 맛도 좋고 밀 맛도 좋은 것을, 이 둘을 어떻게 가려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더라." 그럼 두루뭉수리가 아니냐? 그런데 이거 밀 맛 보고 난 뒤에는 벌써 이건 없어진 거고 이건 보리 맛 그냥…. (녹음 안됨) … 돌아가는데 어떤 거를 겨냥해서 이게 맛이 좋다 할까? (중략)

사람은 죽으나 사나 밀고 나가는 인내가 있어야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랑과 애절한 그 인간미가 있어야 돼. 정직한 인간미! 난 솔직한 얘기지 사람사람이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겠지마는 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누구나가 자기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요, 자기 마음이 아는 것을 우주간 법계에서 아는 거라. 진실되고 진실치 않고는 자기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주간에도 알고 남들도 알아요. 속이려야 속일 수가 없어! 여러분이 그 도리를 안다면 속이려야 속일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 너무나 멋진 이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법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법망에, 수없는 그, 갈갈이 헤어날 수도 없는 법망에 우리의 근원이 거기에 다 연결이 됐다는 그 사실을 아신다면 참 너무도 묘법이요, 그렇게 광대무변한 법이 없는 거예요. (중략)

언젠가 한번 사월 팔일이 돼서 "이건 촛불이 하나도 없구먼!" 했더니 촛불이 왜 없느냐는 거야. 허허허. 그런데 촛불 켠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천 명 이상이 켰는데. 이거 되겠어요? 그런데 올해 촛불 켠 걸 보니까아, 많더군그래. 응? 허허허…. 참 기분 좋았어요. 저 산을 바라보니까, 등을 내려다본 게 아니라 저 산을 바라보니까 그 산봉우리에 화광이 비추더구먼그래. 마음들이 한데 모아져서 봉화불이 켜지듯이 이렇게 켜지니 얼마나 좋을까? 넋을 잃고 바라본 것도 바로 내 거울이라. 여러분의 마음의 거울과 내 마음의 거울과 같이 동시에 반사가 되기 때문이라.

그리고 여기 이렇게 모두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일일이 따져. 비구니 비구, 무슨 중생 부처, 보살 법신 뭐, 요런 걸 따지기 때문에 그게 막혀서 공부를 못해. 그 일일이 막히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누. 이것이 색과 이름에 자꾸 끄달리기 때문이라. 그걸,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죽으라고 죽으라고 그래도 안 죽어. 죽는 놈이 글쎄,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여자 따지고 남자 따지고 이러겠어? 죽은 놈이!

그러면 오늘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1986년 6월 2일 일반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나 사나 밀고 나가는 인내가 있어야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랑과 애절한 그 인간미가 있어야 돼.
정직한 인간미!



전국 주요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동시 판매중!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용수 스님의 아침편지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이 지나칩니다. 우리를 좋아하던 좋아하지 않던, 그것은 우리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일입니다. 우리 일은 그런 관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일은 인정과 비판의 부질없는 공한 본질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 말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중요성을 둡니까? 일리가 있으면 받아들이고 일리가 없으면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 보다 자신이 자신을 더 잘 압니다. 좋은 말이면 바로 넘어가고 안 좋은 말이면 따지고,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버리세요. 무엇을 해도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무엇을 해도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체 신경 끄고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세요. 깨어있고 순수한 마음에 신경 쓰세요. 평정심을 키워서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세요.





진광 스님의 길 위의 풍경들

⑫ 티베트– 칭장열차와 타얼스

천혜고도 수놓은 아름다운 '신심'

우리는 티베트 라싸를 떠나 칭장열차(靑藏線)를 타고 칭하이성(靑海省)의 성도인 시닝(西寧)으로 향한다. 최대 해발고도 5072m에 평균 4500m로 세계에서 가장 고도가 높아 하늘길이란 의미의 '티엔루(天路)' 로도 불린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으나 지난 2006년 개통되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라싸에서 시닝까지 칭장열차로 꼬박 24시간이나 소요된다. 가는 길에 설산의 풍광과 야크, 양떼들, 나무초(納木措)호수, 황하와 장강의 발원지인 곤륜산, 해발 5,020m의 당고라 고개, 천산산맥과 청해호의 장관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순례 대중은 티베트의 추억을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모두들 행복한 모습들이다.

옛날에는 꺼얼무에서 자동차를 전세를 내어 여행허가서 없이 2박 3일에 걸쳐 모험과 도전을 해야만 겨우 라싸에 갈 수가 있었다. 필자는 그 험난한 길을 26시간 만에 주파한 적도 있었다. 그 때에 비하면 칭장열차의 운행은 그야말로 천지개벽이자 상전벽해가 아닐 수 없다.

시닝역에 내려 곧바로 타얼스(塔尒寺)로 향했다. 티베트 불교 겔룩파의 6대 사원 중의 하나로 명대 1560년에 창건 되었다고 한다. 대전(大殿) 앞에는 쫑카파(宗喀巴)가 탄생한 것을 기념해 세운 12m 높이의 다인탑(大銀塔)이 있다. 전설에 의하면 쫑카파를 낳은 어머니가 태반을 묻은 곳에 보리수가 자랐단다. 보리수에는 10만 장의 잎이 자랐고, 그 잎마다 사자후불상 10만 존(尊)이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불경을 짊어지고 온 백마가 숨을 거둔 것을 기념한 유적이 인상적이었다. 아울러 현 14대 달라이라마가 청해성 출신인지라 환생이 확인되어 라싸로 가기 전에 잠시 이곳에 머물렀다고 전해진다.

대전에서 순례를 마치는 회향식과 함께 천축구법승과 대당유학승, 그리고 서역개척자인 고선지와 흑치상지 장군을 기리는 추모제를 함께 봉행하였다. 사원 앞의 백탑군을 돌며 대중 스님들이 탑돌이를 하는데, 오체투지하는 티베트인들과 소대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인네의 염원이 눈물겹도록 아름답다.

타얼스 참배 후 시닝에서 비행기를 이용해 충칭(重慶)으로 돌아왔다. 모처럼 쾌적한 호텔에서 목욕과 함께 공양을 하고나니 티베트에서의 고난과 피로가 일시에 풀리는 느낌이다. 새로운 마음으로 근교의 명승인 대족석굴로 향했다.

다쭈(大足)석굴은 쓰촨성(泗川省) 대족현에 40여 개소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이 중에 북산과 바오딩산(寶頂山)의 마애조상들이 가장 유명하다. 예로부터 중국에는 '북쪽에는 둔황, 남쪽에는 다쭈(北敦煌 南大足)' 라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로 석각예술의 정수로 일컬어진다. 그런 까닭에 하나하나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방대한 규모에 정교하면서도 섬세한 새김, 불교 예술사적인 가치로 인해 다쭈 석각군은 199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세계불교 문화재의 보고라 할 수 있다.



타얼스 입구의 탑조들 모습.

칭장열차 타고 칭하이성에 입성해
겔룩파의 6대 사원인 '塔你寺' 참배
기도와 오체투지 티베트人에 '감동'

대족암각은 바오딩산 인근에 9세기부터 13세기에 걸쳐 만들어진 불교 암각군이다. 당대 758년 건립된 이 석각은 당말부터 청대에 이르기까지 조성된 6만여 기의 불상이 100여 곳의 석각군에 흩어져 있다. 말 그대로 도시 전체가 석각에 둘러싸인 석각의 고장인 셈이다. 특히 바오딩산(寶頂山) 석각은 남송의 승려 조지봉(趙智鳳) 스님이 불교를 통해 만인이 고통없이 행복하게 사는 불국정토를 만들고자 1179년부터 1249년까지 70여 년에 걸쳐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한 스님의 신심과 원력이 얼마나 위대한 작품과 변화를 이끌어 내는가를 보여주는 실례라 할 것이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70평생을 오직 부처님을 조성하며 진력할 수 있다는 것은 실로 불가사의하고 희유한 공덕이 아닐 수 없다. 스님의 동상에 참배하고 찬탄과 경외의 마음을 담아 향 한 자루 사르고는 우러러 그 자비덕화를 찬탄한다.

우리라면 정녕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도무지 알 수도 자신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이른 새벽 어둠을 뚫고 첫 새벽을 열며 길을 나서는 사람이 있다. 그렇듯이 누군가는 그 불가능한 일들을 마침내 성취하고, 새로운 길과 희망, 그리고 깨달음의 역사를 창조하는 법이다. 우리 자신이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

중국의 대문호인 루쉰(魯迅)은 그의 소설 〈고향〉에서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태초에 땅위에는 길이 없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최초(最初)이자 최고(最高)가 될 수 있기를 매 순간 서원하고 실천해야만 할 것이다.

거대한 부처님 열반상 조각아래 아난이 눈물 짓고 있는 모습을 바라본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불보살님께서는 하염없이 자비와 연민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리라. 하나는 이를 조성한 지봉(智鳳)스님의 신심과 원력에 감격해 흐르는 눈물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안하는 지금의 스님들이 안타까워 흐르는 눈물일 것이다.

우리 순례 대중은 불보살들의 그 눈물의 의미에 대해 과연 어떤 원력과 실천으로 답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각자의 삶과 수행에서 혹은 저마다의 수행자다운 위의(威儀)와 행해(行解)로써 지금 걸어가는 자신의 발자국이 뒤에 오는 이의 사표(師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한다. 무릇 수행자는 그 뜻이 넓고 굳세야 하나니, 그 임무는 무겁고 가야할 길이 멀기(任重道遠) 때문이다. 부디 능히 만 권의 책을 읽고(讀萬卷書), 만리의 길을 감으로써(破萬里程) 그대만의 새로운 길과 희망, 그리고 깨달음과 함께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조계종 교육부장〉





본방송 월 13:30
재방송 월 23:00, 일 14:00



본방송 월 14:30
재방송 월 22:30, 목 14:00



본방송 화 07:30
재방송 화 16:00, 일 17:00



본방송 수 09:30
재방송 수 19:30, 토 14:30



본방송 수 11:30
재방송 수 20:00, 일 08:30



본방송 수 14:30
재방송 수 22:30, 토 09:30



본방송 목 13:30
재방송 목 23:20, 토 16:00



본방송 금 08:30
재방송 금 22:30, 일 22:00



본방송 금 09:30
재방송 금 19:30, 일 12:30

BTN붓다회 동참문의 1855-0108 | olleh 233번 Btv 30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우리의 행위가 바를 때 가피(기적)는 있다.

불 · 법 · 승 정법 실천도량

연등사(선재불교대학) 도안 합장

경남 거제시 연초면 천곡1길 62 (충해공원 내)
☎ 055)633-6555

그 근거는 신앙생활의 모체인 경전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각 종단은 지도 원리에 따라 수행의 지침서(교과서)인 소의경전(所依經典)이 있다. 이는 **불교의 경전으로 신행을 비롯하여 교의적으로 필요로 하는 근본경전이 소의경전이다.**

한국 불교종단 대부분이 많은 경전 중에서도 금강경 · 법화경 · 화엄경등을 소의경전으로 하여 그 지도 원리에 따라 경전의 말씀대로 바르게 수지하고 있는지 살피고,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절 집에서 가르침과 동떨어진 잡상인 행위를 하루 종일 하고 있으니 알리고 또 알릴 수밖에 없다.

그 행위는 부적, 삼재풀이기도, 산신, 용왕, 사주, 관상, 방생, 성지순례, 기왓장장사, 다도, 수능합격기도, 술, 담배, 신년기도 위패(만년. 평생. 영구), 스님생일(어느 큰스님 법문에 출가자가 생일 찾는 것은 정신나간일), 우담바라, 각종바위, 바위에 동전붙이는 행위, 남성 심벌 만지는 것, 경을 머리에 이고 도는 행위, 돈 액수에 따른(큰 등. 작은 등), 등종류(108. 사업성취. 재수. 합격. 승진 등등), 그림(달마도→어록의 말씀을 펼쳐야 함), 극락발원 티켓, 죽비 치는 행위, 솥을 흔드는 행위, 절 짓는 일(동국대, 승가 대등에 학인스님 교육 불사와 불우이웃돕기 해야 함), 각종기도(운맞이. 운수대통. 재수대통. 해돋이 등), 진산식(걸식하는 이가 진산식 이라니...), 관장, 원장, 대표이사(중 벼슬이 닭 벼슬보다 못하다고 했거늘), 합창단, 산사음악회, 천도재(소천도. 대천도. 특별천도재 등), 생전예수재 등 재비와 고액이드는 성지순례 비용으로 불우이웃에 기부하고 선업을 닦기 위해 장애인, 요양원 아니면 고향부모 찾아 효행을 하는 것이 선행을 닦는 것 임.

이렇게 불조사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행위로 하루 종일 온 도량을 더럽히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삼보천룡과 팔부신장이 왕림 하겠는가?

그러면서 가피. 영험이라니

(금강경)

※ 수보리야 여래는 진리의 말(참된 말)을 하는 이며, 진실(실다운 말)을 말하는 이며, 진여(한결같은 말)의 말을 하는 이며, 거짓말(속이지 않는 말)을 하지 않는 이며, 다른 말(다르지 않는 말)을 하지 않는 이니라.

※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이 경을 바르게 받아 지니고(실천) 읽고 외우며 타인을 위해 널리 바르게 알린다면 여래는 이 사람을 다 알고 보나니 이 사람은 헤아릴 수 없고 일컬을 수 없으며 끝이 없이 가히 생각해볼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되리라.

※ 수보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거짓 없이 바르게(정법) 받아 지니고(실천하고) 외움으로 만일 남에게 업신여김(무시받고 천대받음)을 당한다면 이 사람은 전세의 죄업으로 마땅히 악한세상(惡道: 지옥 · 아귀 · 축생)에 떨어질 것이지만 금세에 바른법(정법)을 홍포함에 남에게 무시되고 업신여김(왕따)을 받으면 곧 삼세(과거 · 현재 · 미래)의 죄업이 다 소멸되어 그는 반드시 가장 높고 바른 원만한 깨달음을 얻으리라.

(화엄경)

물질적인 공양의 공덕을 바르게 일러주는 **법공양(예: 삼재는 띠 삼재가 아닌 자연재해인 대삼재→ 화재, 수재, 풍재. 소삼재→ 도병재, 질병재, 기근재)**의 공덕에 견준다면 물질적 공양은 바른 법공양의 백분의 일, 천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바른 법을 존중하기 때문이며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것이 부처님을 출현케 하는 일이고 만일 우리가 법공양을 바르게 행하면 부처님이 공양을 성취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진정한 공양이 되는 것이다.(금강경 제14: 이상적멸분→ 복과 지혜는 견줄 수 없다 참조)

(법화경)

※ 여래가 입멸 후 사법(삼재 · 부적 등 비불교적인것)을 멀리 하고 바르게 정법을 수지하여 타인에게 교설하는 사람은 여래가 옷으로 이 사람을 덮어준다.

또 타방에 계시는 현재의 제불께서 보살펴 주심은 물론 여래께서 항상 그와 함께 기거하시며 그 사람의 머리를 어루만져 주느니라.

※ 너희들이 다만 불법을 바르게 실천하며 알려주는 사람을 옹호하기만 하여도 한량없는 복을 얻는다.

※ 만약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내어 바른 법을 전하는 수행자에게 칼과 몽둥이 기와나 말, 돌로써 그를 음해하거나, 가해하려 한다면 즉시 변화신을 보내어 그를 보호할 것이다.

※ 만일 바른 법을 믿지 않는 중생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마땅히 여래의 바른 깊은 묘법(신통묘력)을 보여줄 것이니라.

(대열반경)

※ 만일 어떤 수행자가 이 경전을 읽고 쓰며, 외운 것을 바르게 해설하면서 타인에게 말하고 그 뜻을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진정한 나의 제자로서 나의 가르침을 잘 받아 지닌 이며, 내가 보는 바이며, 내가 생각하는 바이다.

※ 무섭고도 겁나는 삿된 법(사주 삼재 부적 등)이 성행하는 말세(2500년 후)에 가서, 바른 법이 다 사라지려할 때 경전을 펴서 지키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그 공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한량 하느니라.

(대승보살장 정법경)

※ 부처님 입멸 후 바른 정법이 없어지려 할 때는 마음을 굳게 먹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도록 해야 하며 선지식(바른 수행자)을 가까이 하고 생사에서 벗어날 것을 원해서 정각을 구하는 견고한 의지를 지니고 바르고 큰 정진력을 일으켜 마군의 무리를 깨야 하느니라.

(아함경)

※ 너희들은 나의 입멸을 보고 바른 법이 영원히 단전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계율을 제정하고 바른 정법을 설해 왔으니 너희들은 내가 입멸한 뒤에 계율과 바른 정법을 스승삼고 의지하여 가난한 사람이 보배를 얻은 것 같이 할지니라(열반경 참조)

(불반니원경)

※ 경을 감추거나 숨기지 말고 모두 공개할 것이며, 경속에 의심되는 바가 없도록 하라. 내가 열반한 후에 바른 수행자는 이 법을 지니게 될 것이니라.

※ 이외**(대방등대집경. 발보리심경론. 마역경. 열반경. 소성다라니경. 불설불모출생삼법장반야바라밀다경. 현우경. 대장엄경. 유교경. 신불공덕경. 관무량수경 등 참조)**에 경전에서 보듯이 부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바르게 실천 수행할 것을 강조하셨고 우리에게 유훈으로 남겨놓고 잠시 사바세계를 떠나셨다.

사례 (희귀병)

2010년 서울을 떠나 여기 거제도에 안착했으나 한 달에 한번 꼴로 서울 나들이를 하고 있다. 그날도 여러 가지 일을 볼 겸해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차를 한잔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도분이 불쑥 "스님! 지금 00보살이 오고 있으니 꼭 좀 친견해 달라"는 것이다. 스케줄에 없던 얘기다. 그러나 이미 오고 있다는데 어쩔 방법이 없었다. 그러고 조금 있다 보살이 들어왔다. 그 보살은 태백산에서 인연이 되었던 이다. "스님"하며 인사를 하고는 스님 가시기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뵙기를 청하는 것이다.

그 가게는 가족전체가 운영하는 가게다.

그리고 바로 가게로 가니 가족이 반가이 맞이한다. 다시 차를 한잔 하고 있는데 별다른 말은 하지 않고 "스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라는 말 밖에 하지 않고 있는데 약 5분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출가한 딸이 아들(7세)을 데리고 와서 인사와 동시에 그 아이를 내 무릎위에 앉히는 것이다. 사실 난 아이들을 좋아한다. 그렇게 해서 그간 안부를 물으며 얘기를 하는데 내 무릎위에 있는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얼굴을 2초 간격으로 한쪽 방향으로 빠르게 90도로 계속 돌리기를 반복하는 것이다.

보니 틱은 아니었다.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냐?"고 하니까 아이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6개월 되었다"고.... 서울 대형 병원에서 가료와 치료를 병행했고 또 유명한 한의원에서 침술과 한방치료를 두 달 받았는데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냐고 하며....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이런 일이 있으면 빨리 연락해야지 하며 좀 꾸짖었다.

그리곤 모레새벽 04에 전 가족이 연등사 법당에 오라했다.

정해준 날 새벽에 전 가족이 다 왔다.

그때도 안거 중이었기에 신도님과 같이 기도를 해주었고 지금 그 아이는 학교생활을 잘 하고 있다.

※ 이렇게 각 경에서 보듯이 부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삿된 행위(기복 · 잡귀)를 버리고 바르게 실천 수행할 것을 경마다 강조 또 강조하시었고 궁극에는 **열반경에서 유훈(법등명,자등명)으로 남겨놓고 사바세계를 떠나셨다.**

또 부처님말씀(경전)은 2600여년이 지났어도 경전에 글자한자 변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변해도 너무 변했다.

드러내놓고 하는 말과 행위는 아예 불교가 아니다.

여기 오는 이들 대부분이 전국을 몇 바퀴 돌고 오는 환우 들이다.

그들의 한결같은 소리는 "스님! 부적, 삼재, 방생, 성지순례, 합격기도, 재수기도 등등 안하는 곳이 있느냐?"고 반문한다. 부끄럽다.

귀감이 될 만한 얘기를 하고 싶어도 꺼리가 없다. 있다면 오로지 경전 뿐 이다. 그들은 이미 우리의 민낯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 권력형 정치꾼에게 "형님" 하며 0억 갖다 주지 않나, 사찰인근 호텔에서 술, 담배에 화투장을 들고 밤을 지새지 않나, 0가연수원에서 음주, 가무를 하지 않나, 경내에서 크다는 00들이 거액의 판돈을 걸고 새벽3시까지 도박을 하다 법당에 들어가질 않나, 수 십 안거를 충만하고 00장까지 한 이가 호텔에서 수 백 만원씩 받고 전



라의 몸을 더듬지 않나, 중 벼슬이 닭 벼슬보다 못하다고 했거늘 한 · 일 관계가 그어느 때보다 민감한 이때 원장, 관장, 대표이사 등 하다 물의를 일으켜 하마평에 오르지 않나, 이번 일로 우리들 두 얼굴의 민낯을 확실히 보게 해주어 감사하고 감사한다. **승가여 벼슬은 능력 있고 수완 좋은 저들에게 맡기고 수행자는 세상을 향해 보현행원으로써 걸어가자.**

그리고 제발 참회하자. 말로써 하는 참회 말고 진 참회를 저들이 용서해 줄때까지...

이번 법공양은 충주 어느 법보단체의 공덕으로 부처님 전에 회향합니다.

감사합니다

※ 접수처 055-633-6555 (010-3143-5302)
연등사(선재불교대학) | **도 안 합장**
경남 거제시 연초면 천곡1길 62 (우:53211)

사례자 연락처

- **010-3143-5302 (윤 ○○)**
- **010-5699-3173 (박 ○○)**
- **010-8291-9423 (변 ○○)**
- **010-9707-4808 (박 ○○)**
- **011-9143-0098 (김 ○○)**
- **010-4807-6932 (박 ○○)**



❖ 본 내용은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